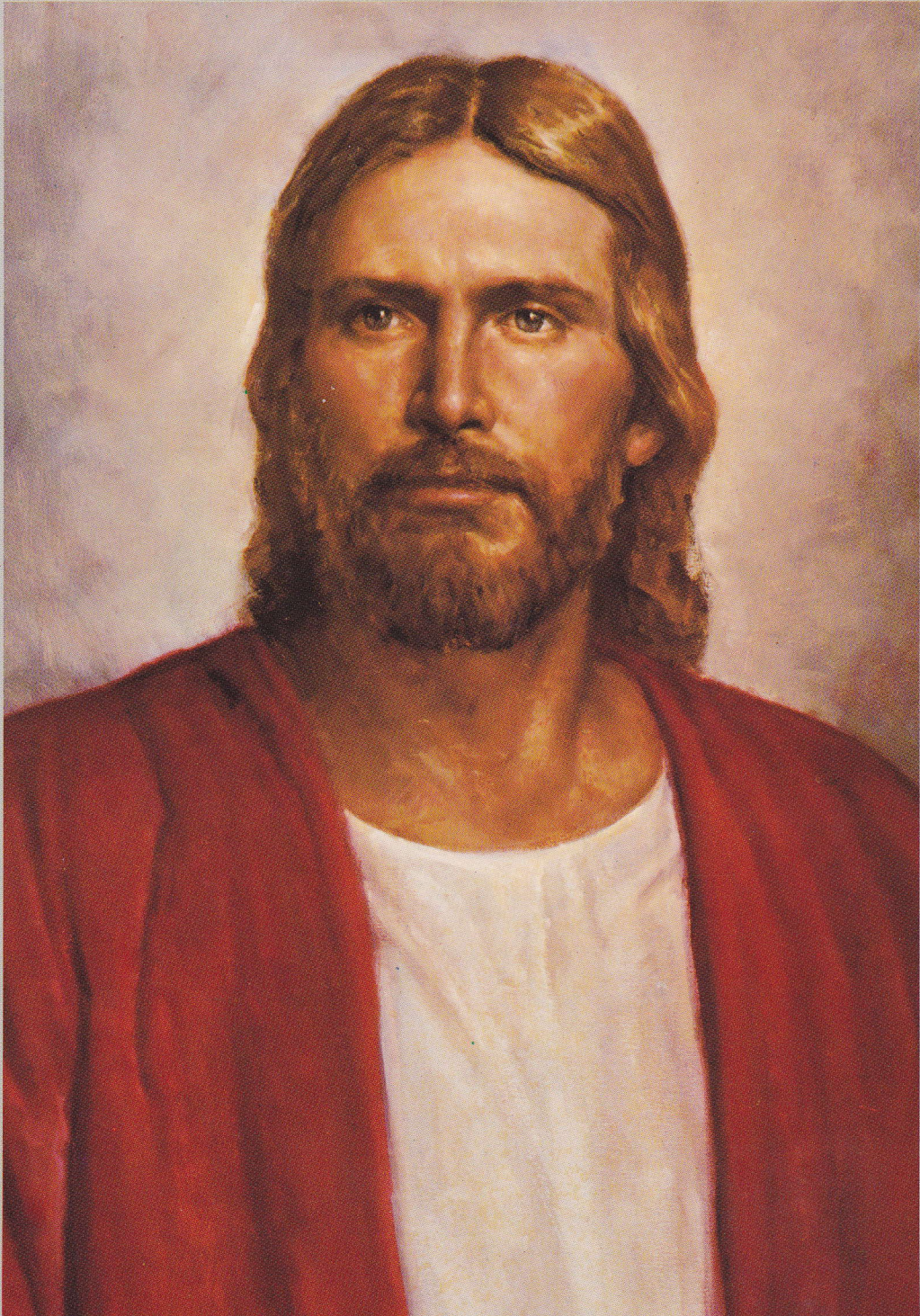


성도의 빛 4/5  
1985





# 성도의 벗 4/5 1985

International Magazine ©1985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스펜서 더블류 킴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

에зра 테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쿱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고문 :**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랙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통 권 : 제234호, 제21권 제2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 1985년 2월 1일(격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62KO PRINTED IN  
KOREA 4-5/85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  
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 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례

- 1 나사렛 예수.....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 6 물론경 심층 연구 : 제2부.....존 엘 소렌슨
- 13 성령으로 가르침.....로렌 시 던 장로
- 16 일요일에는 열지 않음.....퀸텐과 라레 와가 루스
- 18 평생에 한번 오는 생일 선물.....플로이 돈 맥케이
- 21 우리 집에 질서를 세웁시다.....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 26 저마다 원하는 대로.....던 엘 라슨 장로
- 29 질의 응답.....제리 테일러
- 31 가정의 밤에서의 신앙개조...엘리자벳 마틴슨
- 32 회원 선교사가 되라.....린드세이 알 커티스
- 36 오늘날의 모습.....교회 역사와 관련된 장소·카메라 탐방
- 40 심심풀이.....콜린 페이
- 41 친구가 친구에게.....채닛 피터슨
- 43 경전 이야기(아브라함과 사라)
- 46 바편 신발.....파울라 디파올로
- 49 교회 및 지역 소식

우리 집에 질서를 세웁시다.





# 나사렛 예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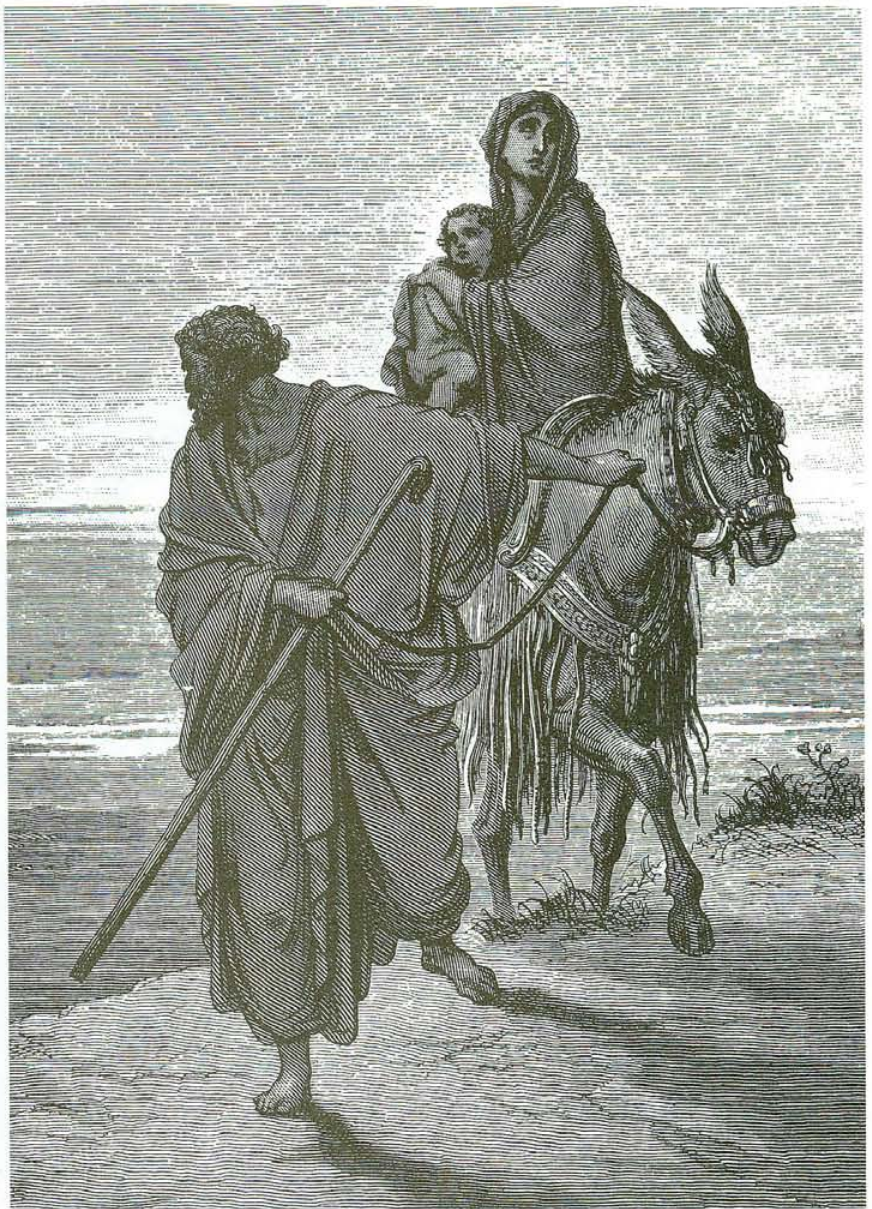
이것은 1981년 12월에 탐블리 잡지에 게재된 기사를 발췌한 내용이다. 킴볼 대관장의 지시로 가정에서, 또한 가족 토론에 활용하도록 정리해서 다시 출판하게 되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의 탄생, 생애, 사상은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활의 길을 열어 주고, 완전한 생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주며, 승영으로 가는 길을 보여 주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자원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보잘것 없었고, 그의 생애는 완전했으며, 그의 모범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망이 문을 열었으며, 이로써 인간은 모든 좋은 은사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혼이 자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망과 계획은 헛된 것이 됩니다. “보리,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교성 19:16)

구세주께서는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모세 1:39) 오셨습니다. 그의 탄생, 사망, 부활이 불사 불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분의 노력에 우리의 노력을 가미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파이인들에게 승영을 위한 영원한 계획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27)

그분은 유대인 무리를 산상으로 인도하시고 승영의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의 훌륭한 산상수훈에는 모든 계명과 모든 요건이 다 포함된 것 같으며 그분의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몇 년 더 일찍 돌아가시고도 첫번째 요건인 부활과 불사 불멸은 성취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에 이르는 길을 굳건히 닦기 위하여 위험에 찬 생애를 더 오래 사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30년 이상이나 위험에 가득 찬 생애를 사셨습니다. 헤롯왕의 무서운 어린이 학살로부터 빌라도가 피에 굶주린 폭도들에게 그를 넘겨 줄

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범죄자처럼 포상금이 딸린 가운데 위험한 생활을 하였고, 마침내 30년에 팔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간 원수들만이 그를 곤경에 몰아 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도 그를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사탄과 그의 군대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찍 사망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더 훈련시킬 때까지는 지상을 떠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사도들을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백성들을 성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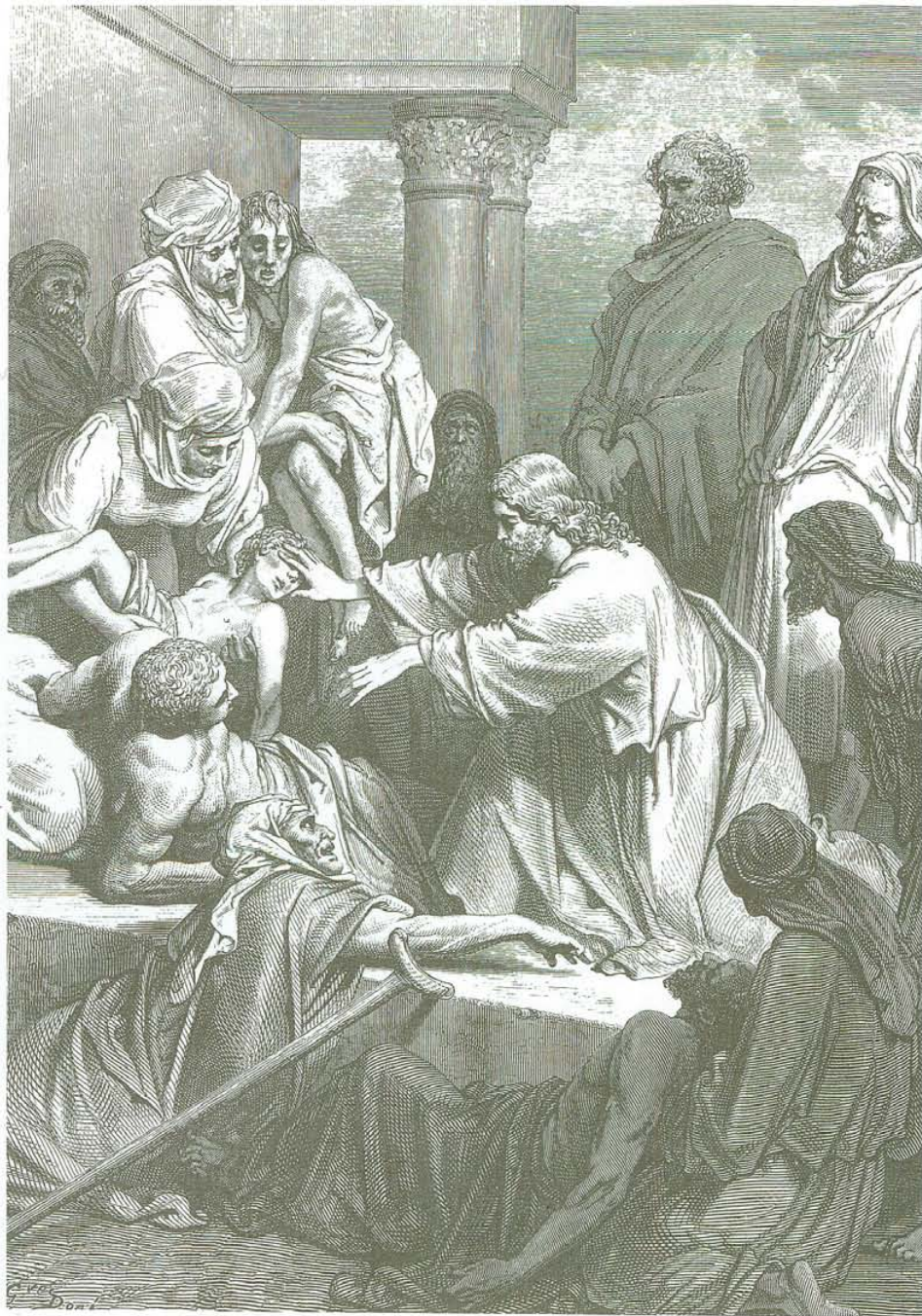
준비시키기 위하여 남아 계셨습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언된 절차대로 사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언된 대로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사야 53:3)였습니다. 그가 기쁨 뿐 아니라 슬픔까지도 겪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개인적인 완전이 가능한지를 알며, 또한 그것을 달성하도록 마음으로 설득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평생을 시련을 거치며 사셨습니다.

그는 성역 초기에 완전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분은 당신이 직면하실 시험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완전이라는 숭고한 이상에 맞추어 생활하실 수 있었을까요? 계속되는 압력에 맞서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그의 생애는 그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태어날 때부터 험난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흔히 있는 일상 생활 시설도 없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분은 달갑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여관에는 그가 거할 방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황급히 먼 나라로 가야 했으며 이 여행은 매우 다급하고 두려운 위험에 찬 여행이었으며, 아직 모유를 먹고 있었을 어린 아기에게는 매우 힘든 여행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애급으로부터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여행은 더욱 길고 어려운 여행이었으며, 이것도 잔인한 통치자의 미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련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12살밖에 안된 소년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아마도 루시퍼는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49) 그런 연후에 사탄이 그를 쫓아 매려는 순간이 왔습니다. 전세에서 그들이 맞섰을 때는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때는 예수님은 어리고, 사탄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달려들어 예수님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부자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루시퍼는 그것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금식하신 후 시장해서 영양분이 필요했으며, 바로 그때 잔인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 그런 순간 떡은 참으로 식욕을 자극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매우 추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천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하리도다.”(마 4:6) 아마 주님은 당신의 무한하신 권세를 충분히 아셨겠지만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하여, 또한 사탄의 악독한 도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부와 열왕과 황제의 권세, 풍요한 영광, 모든 충동, 욕구, 욕망, 열정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높은 산 위에서 아주 마음을 끌 수 있는 간교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마 4:9)

그러나 이 모든 피임을 과감히 거절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그는 얼마나 외로운 생활을 하셨을까요. 그는 더 이상 사생활도 없었습니다. 그는 병고침 받은 자에게 여러 번 “삼가 아무에게 아무말도 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와 선하심을 입은 자들은 사방으로 다니며 그 일을 찬양하고 알려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막 1:45) 계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도전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원리를 변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식사합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써 안식일을 깨뜨립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구실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원수들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만 해도 피로운 일인데 그의 친구들까지 “불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막 3:21)

그가 누구에게 가서 동정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위안을 얻기 위하여 자주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닐까요? 외롭고 혼자이며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나 잘 곳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눅 9:58)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언덕으로 오르셨으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갔으나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배 안에서 쉬려고 누웠으나 이런 불평의 말을 들으며 잠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막 4:38)

그가 거라사인 지역에 내렸을 때 그곳 사람들은 그의 기적에 겁을 먹고 “떠나시기를 구하”(눅 8:37)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야 했습니다.

그가 백성을 먹이셨을 때 무리가 그를 따랐으나 그릇된 이유로 따랐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 6:26)

주님이 그들에게 엄한 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많은 일을 할 것을 명하시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요 6:66) 그리고 주께서 죽음을 향하여 걸으실 때에도 그의 택하신 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요 6:70) 그분은 그 후에도 매일 그 배반자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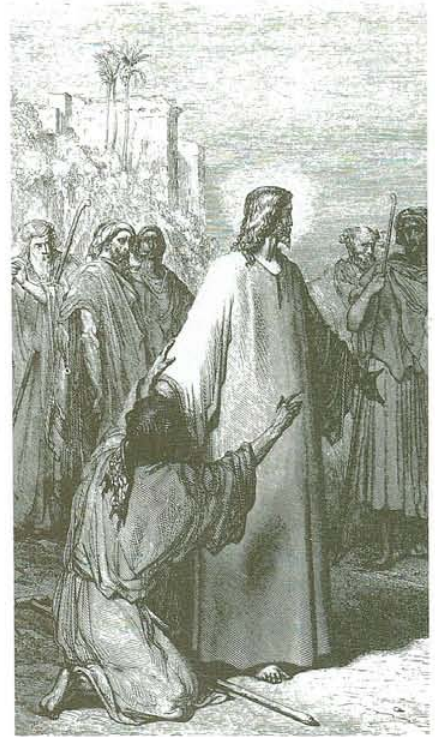
죽음이 목전에 왔다는 것을 알면서 피신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이 후에 예수께서……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요 7:1)

그는 주목받지 않고 다니려 하셨으나 “숨길 수 없”(막 7:24)였습니다.

가장 실망하셨던 한 예는 집으로 돌아오실 때였습니다. 그를 위한 따듯함이란 없었고 호기심과 배척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막 6:3) 그들은 평범한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막 6:5-6) 또한 그들의 질투와 빈정댐으로 인하여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환향입니까! 불쌍한 나사렛이여! 자기 마을의 아들인, 그들 자신의 구속주를 배척한 불쌍한 나사렛인들이여! 그가 빨리 피신하지 않으셨던들 그들은 그를 절벽에서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돌로 치려 하였으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요 8:59)

또 다른 설교를 하신 후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요 10:39)



그를 잡는 사람에게는 상금이 있었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육체적인 폭행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그의 행방을 밝히려는 말을 듣고 있었었습니다. 죽음의 유령이 그의 앞에 가고, 그와 함께 앉고, 함께 걷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단 한 마디 말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게 할 수 있었던 분이 자기 원수를 저주하는 것을 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보복하고 싸우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굴욕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는 반역자라는 것을 이미 아는 자가 입맞춤하는 것을 허용하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포당할 때 충성스러운 사도 베드로는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용의가 있었으나 그가 당신을 방어하여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명에 절대 복종하는 12개 군단의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주고 그의 옆에 있는 용감한 사도들의 무장을 풀었습니다. 그는 이런 모욕과 학대를 보복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마 5:44)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에도 그는 조용하고 침착하고 거룩한 위엄을 갖고 견디셨습니다. 그는 단 한 마디도 분노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의 뺨을 치고 구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겁내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그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라는 자신의 훈계를 문자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움추리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를 정죄하기 위하여 뇌물을 받은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할 때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의미를 곡해했으나 그는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를 팔기 위하여 사용된 은화의 은을 만드시고, 장막 양쪽의 방어자들을 모두 명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엄이며 극기이며 자제심입니까? 심지어는 완전하고 죄없고 선하고 생명의 왕자이며 공의로우신 그가, 선동하고 반항하는 살인자인 바라바와 저울질당하여 바라바가 이기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대가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도 구세주는 그런 부당한 결정을 내린 판사를 정죄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눅 23:18)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말씀도 안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눅 23:21)라고 말하며 그의 피를 요구하여 외칠 때에도 아무런 비난이나 정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위엄, 권세, 자제력, 인내의 발로였습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 주다니! 공의로운 분 대신에 불의한 자를,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 형을 당하고 죄인은 풀려나다니! 그러나 그들이 정죄한 이분으로부터는 복수의 말이나 욕설이나 정죄의 말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벼락이 내릴 수도 있었으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나 그를 구원하기 위한 지진도 없었습니다. 천사의 군대들이 준비하고 있었으나 천사들이 무기를 들고 그를 보호하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변형될 수도 있었으나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고도 채찍질당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한 마디 말만 나왔으면 모든 적이 백없이 땅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모두 멸망당하고 먼지와 재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견디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못박은 군인들에게 넘겨졌을 때에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자색옷을 입혀 모욕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시관을 씌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흐르는 피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찌어다.”(마 27:25)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십자가형만이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지만 그들은 먼저 그를 괴롭히고 얼굴에 침뱉음으로써 기분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주님은 손에 갈대를 들고, 어깨에는 자색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모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그를 놀리고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음의 모범으로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비열하게 조롱하는 가운데 그를 거짓 경배하고 조소하며, 그에게 기도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며 웃고 지겨웠습니다. 그들의 모든 추악함과 인류에 대하여 품고 있는 모든 불만과 친지와 적에 대한 모든 원한이 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합당한 한 분에게 다 쏟아져 내린 것입니까? 언제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천사보다 조금밖에 낮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희생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의 타락한 육욕을 더 이상 만족시켜 줄 수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가 그 무거운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그 멍들고 피흘리며 아픈 육신으로 지고 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튼튼한 등에는 짐을 지지 않고, 그가 땀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 쉬고, 비틀거리며, 무력한 희생자가 되어 무거운 발을 끌고 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무력했습니까? 여전히 12군단의 천사들이 그의 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때도 짐을 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때도 고민하면서도 그를 구하려 가는 것을 억제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군중이 따라가며 쳐다보고 옆눈질하고 가증한 말을 하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막 15:31)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았거나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고,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앞을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죽어서 4일 동안 무덤에 누워져 시체가 썩기 시작했는데도 다시 살아나 걸어 나오는 등의 기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부드럽고 떨리는 살을 뚫고 못이 박혔습니다.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멍 속으로 쳐박혔으며, 살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혹독한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몸이 땅에 떨어져서 살아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팔목에 못을 박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그를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마 27:42) 아무 상처나 부상없이 온전하게 내려 설 수 있었던 주님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큰 도전이었으나 주님은 마음을 정하시고

당신의 사명, 즉 바로 이 인간과 그 자녀들이 귀기울일 때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이 모든 엄청난 굴욕을 견디고, 마침내 사망을 겪는 이 사명을 행하시며, 고통 가운데 큰 땀방울 같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육신의 생명이 급격히 사라지는 가운데 그는 자신을 억제하고, 자신의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유혹을 참고 계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배고픈 것을 면하도록 광야에서 유혹받은 것처럼, 또한 산꼭대기에 서서 원수에게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주고 싶은 유혹을 받은 것처럼 다시 유혹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주님을 유혹했던 루시퍼가 그의 종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충동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때 똑같은 책략과 똑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눅 23:37) 십자가 위의 강도도 그를 조롱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눅 23:39)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박해에 있어서 그 죄의 차이가 극히 적을 따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수놓은 긴 옷을 입고 뺨내는 성직자들, 천하고 비열하고 타락한 백성 지도자들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군중 사이에 있으되 주님은 혼자였습니다. 주님을 위안하기 위하여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으나 주님은 혼자였습니다. 깊이 동정하지만 당신 아들이 이 괴롭고 쓰디쓴 길을 홀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으나 그분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외롭게 피흘리고 열을 내며 돌아가실 즈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분은 동산에 혼자 계시는 가운데 쓴 잔을 마실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얼마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어떤 사람도 과거에 겪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겪지 못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숭고한 행동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자신의 피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그분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그분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진실로 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진실한 사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우리 주, 우리 구세주, 우리 구속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기도 함께 참여하시도록 권고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활할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 생을 완전케 하는 길을 가리켜 주셨고, 승영으로 가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2. 그의 탄생과 사망과 부활이 불사 불멸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의 노력에 우리의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
3. 그가 기쁨 뿐 아니라 슬픔까지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의 명을 지킬 방법을 보여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 때문에 그분은 평생 동안 시련을 겪으며 생활하셨습니다.
4. 만일 누군가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완전이 가능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도록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까?



# 물문경 심층 연구 : 제2부

존 엘 소렌슨

## 소 개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학문과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물문경을 뒷받침해 주었고, 분명히 이해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개발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3편의 기사 가운데 두번째 기사이다. 이 기간에 말일성도들이 물문경을 점점 더 신중하게 연구함으로써 물문경을 고대 아메리카 문서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는 고대 아메리카인 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분야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1935년경 신세계의 기록 발달에 관한 일부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를 당시 마야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실바너스 지 몰리 박사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한다.

“마야 기록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기록 방식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모습의 하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정식 기록 방식의 가장 최초의 단계일 것이다.

“마야 기록은 주로 연대, 천문학—아마 점성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및 종교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결코 이집트, 앗시리아, 바빌로니아의 기록처럼 개인의 영화나 자화자찬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왕의 정복이나 왕가의 무용담 따위는 전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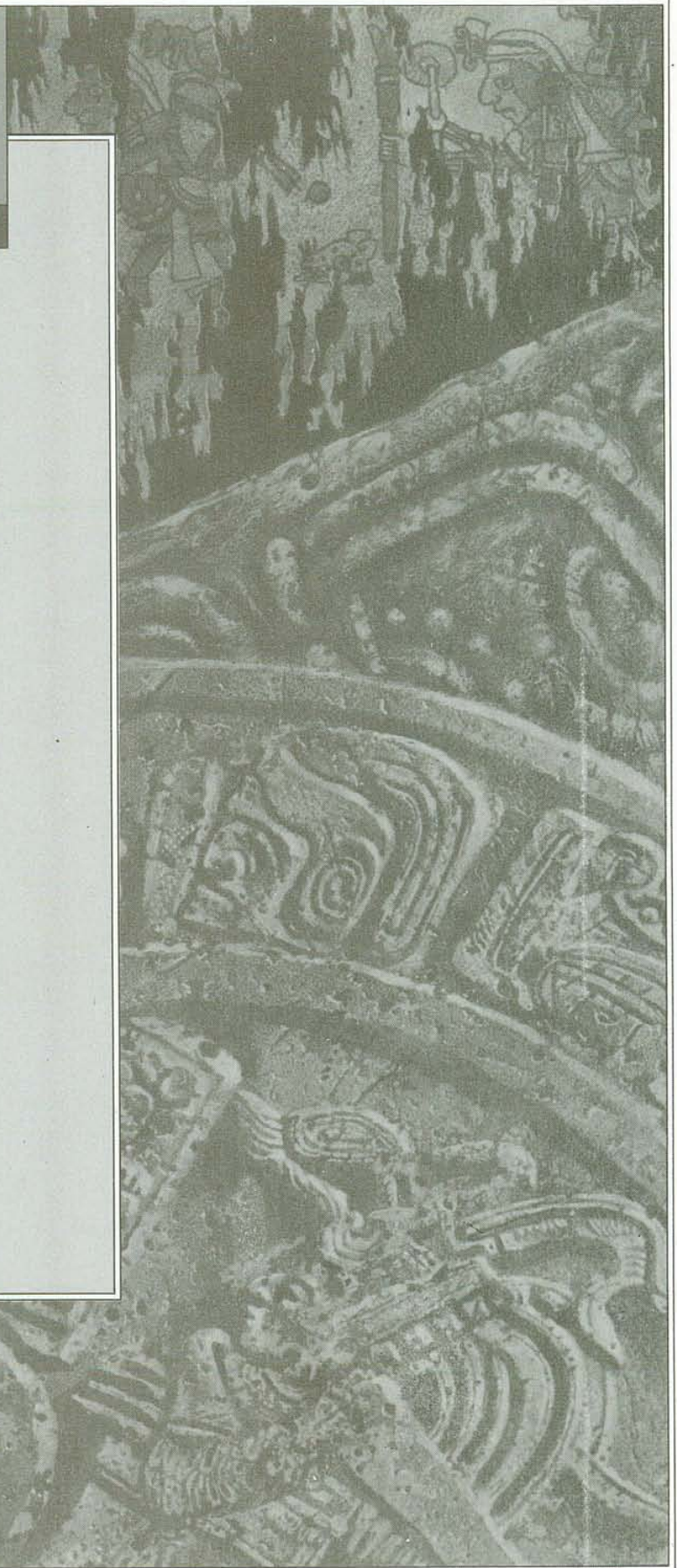


고대 아메리카 대륙과 그 경전에  
대하여 바뀌는 우리들의 이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칭송이나  
과장, 영광을 돌리거나 찬양하는 말은  
없다. 사실상 여기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마야 기념비에 새겨진  
적은 결코 없었다고 할 수 있다.”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물론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학자적인  
견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마이클 코우는 폴리 시대에 거의  
정설이 되어 있었던 “그 이상한 의견”  
즉 마야 기록은 “연대적인  
잡동사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1958년 하인리히 베르린의  
업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코우의  
말처럼 그는 “마야 유적과 거기에  
수반된 내용은 의식이나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마야의 다른 국가를 자기  
영향권 안에 넣으려는 호전적인  
통치자가 있는 원시 국가의  
매일매일의 혼란한 정치와 관련이  
있는 역사 기록”②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였다. 이 새로운 견해는 마야가  
“그들의 정복, 포로 천대, 왕가의  
결혼, 왕가의 계승 등의 이야기가  
있는 이 세상의 다른 초기 문명과  
똑같이 생각되게 한다.”③ 또한 줌더  
니파이인과 레이맨인같이 생각되게  
한다.

학자들에게는 경전이 또 다른







멕시코의 북부 지아파스의 산기슭의 작은 언덕 마을에 있는 팔랭크의 왕인 파칼의 무덤으로부터 나온 멋진 석판. 두께 길이 3.6미터, 폭 2미터 이상.

매우 강한 음성학적 및 음절적인 요소가 있었다.”⑥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메소아메리카 기록에는 표의 문자(소리에 관계없이 전체 개념이나 말을 표시하는)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단 하나의 표시가 독자의 경험과 앞뒤 관계에 의하여서만 규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최고로 오랜 시간과 가장 큰 인내가 필요하다.”⑦ 다시 모로나이의 음성이 베아리친다. 그는 니파이인 기록자들의 “기록이 부족”한 사실을 한탄하였다. 그들은 “부족한 손재주로 조금밖에는 기록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말을 어찌 써야 할까로 어려움을 당”하였다.(이더 12:22-25 참조) 물론도 “우리들의 언어로 합당하게 기록되지 못할 것이 많다.”고 말하며 그들의 기록 방식을 한탄했다.(니삼 5:18 및 각주 8번 참조)⑧ 제이 이 에스 톰슨도 마야 기록에 관하여 똑같이 이야기했다. “지면 관계도 생각하고 제반 의식과도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독자는 그 내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신화와 전설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⑨ 그렇다고 해도 그 독해는 애매할 수 있다.

마야의 상형 문자 기록을 여기에서 발췌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후반기 물문경 시대와 연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서기 약 3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유카탄 반도에 살았던 마야어를 쓰는 주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화강암을 이용하여 새긴 기념비를 수백 개씩 조각하였으며, 그 후손들은 고대 문화를 충분히 간수하였기 때문에 스페인인들에게 마야의 사고 방식과 기록 방식에 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전해 줄 수 있었다. 아즈텍 방식만이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었으나 이것은 좀더

관점에서도 한동안 의심스럽게 보였다. 모로나이는 “백성들 간에 개정된 애굽어라 일컬어지는 언어”가 “우리들에게 전해져 쓰이는 대로 다듬어”졌다고 했다.(몰 9:32 참조) 그렇다면 이 “문자”는 음성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어느 정도는 소리를 나타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몰리, 톰슨 및 바멜 같은 유명한 전문가들은 마야 글자에 음성적인 면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④ 유리 크노로소프 소련 학자가 그 과오를 바로잡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⑤ 오늘날에는 모로나이가 니파이인의 언어 체계를 설명한 것과 흡사하게 “마야의 체계에





석판 뚜껑의 가장자리에 있는 이 3가지 삼형 문자는 왕의 출생일을 기록하고 있다. (서기 603년) 파칼의 오랜 통치는 서기 615년부터 683년까지 68년이나 계속되었다. 이런 상형 문자의 해독 결과 마야 글자는 순전히 표의 문자 방식으로서 음성학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는 이전의 생각이 분명히 잘못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하고 그 후기에 속하는 기록 방식이었다. ⑩ 모두 합쳐서 최소 14가지의 상형 문자 방식이 메소아메리카에서 알려져 있다. ⑪ 저지대 마야, 아즈텍, 믹스텍의 3가지에 관해서만 판독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일부 기록 방식은 단 하나의 원문에 의해서만 확인되었다. ⑫ 요셉 스미스가 우리에게 남겨 준 “안톤 사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구할 자료를 더 갖게 될 때까지는 그런 원문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별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까지 발견한 것으로 수많은 메소아메리카 문화는 적어도 기원전 1천년부터 ⑬ 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안 그런 것도 있지만)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서반구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유럽인이 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기록이 존재했다고 믿게 해줄 훌륭한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⑭ 우리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이곳저곳에서 단편적으로 새겨진 것들을 알고 있으나 그것이 정말로 고대의 기록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에는 의아심을 품게 된다. 그렇다면 물문경이 “좁은 지협” 바로 근처에 수천년 동안 거주하는 문자를 쓰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게 여겨진다. 이곳이 바로 지협이 있는 메소아메리카와 같은 지역으로서 이곳이 신세계에서 비슷한

문자 전통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전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마야 상형 문자 및 이집트 상형 문자의 구조적인 유사성이다. 콜로라도 대학의 린다 엠반 블러킴은 최근에 이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는 6가지 종류의 표식을 열거하여 설명함으로써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녀는 물리의 낡은 판단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마야의 상형 문자가 구대륙 문명의 방식보다 더 낮은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사실상 “마야의 상형 문자는 이집트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6가지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⑮

이집트와 마야 기록의 또 다른 유사점은 양쪽이 모두 생활의 신성한 면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훗지는 “말과 시각적 표시 모두에 있어서의 마술적 힘”이 이집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상형 문자 기록의 기원과 그 긴 수명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⑯ 톰슨은 “상형 문자의 많은 형태와 이름까지도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마야의 상형 문자 기록과 종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⑰ 고 말하고 있다.

물리와 그의 동료들은 종교와 기록의 관련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였으나 다른 것은 거의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기록 방식은 개화된 생활의 모든 면을 통털어서 신성한 의미가 있는 것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으며, 여기에는 통상, 정부, “역사”, 달력, 천문학, 전쟁, 희생, 사망, 건강, 운명, 제보 등이 다 포함된다. 이런 것은 모두 종교적인 의미가 수반되며, 모두 기록을 수반했다.

예를 들면, 마이클 코우는 마야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화려한 장례 화병에 그려진 장면을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에 관하여 불렀을 긴 찬송가”로부터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궁극적인 주제는 마야 영역의 군주들의 사망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⑱ 사실상 “그것은 고대 이집트인의 죽은 자의 책과 비슷한 고대 마야의 죽은 자의 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은 가능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고대에는 그런 책이 수천 권씩 있었을 것에 틀림없다.” 과테말라 고원 지대의 퀴제 마야의 신성한 책인 포폴 부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의 후반기 판으로서 상형 문자 원본에서 번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⑲ 대부분의 마야는 그것이 나타내는 신화적 형태와 그런 책이 이야기하는 사망, 부활, 창조, 운명 등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야의 것만이 가장 잘 보존된 것이었다. 다른





1948년 멕시코시티 근처에서 발견된 올멕 시대로부터 나온 이 원통형 봉인은 메소아메리카로부터 알려진 가장 초기의, 또한 가장 발전된 기록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상징 문자 가운데 일부는 안톤 사본의 글자를 나타내며 구대륙 원본에서 알려져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에도 이와 유사한 믿음과 관계가 있었다. 코우는 “메소아메리카에는 우리가 메소아메리카 종교라고 할 한 가지 유일의 통일된 사상 체계가 있었다.”<sup>20</sup>고 주장한다.

주로 제사장들이 완전한 의미에서 그 종교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만이 종교 구조에 침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잡한 언어를 통달할 기회를 누리고 있었으며 “마야 기록은 일종의 제사장 언어에 깊숙히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풍부한 은유법과 문구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기술과 정리하는 기술”<sup>21</sup>에 관하여 열심히 배워야 했을 것이다. 제사장이

통치자거나 그 반대였기 때문에 이 체계의 지식은 “지도자의 위치를 물려받을 권리를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sup>22</sup>

문자 방식의 복잡성도 상형 문자 기록 방식을 통달하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였다. 50년 전에는 물론 누구도 마야 문장의 체계에 관하여 많이 알지 못했다. 그러나 1950년에 이르러 제이 에릭 톰슨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식민 시대의 마야 기록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고, 또한 그 상형 문자 원본 자체가 시편의 구절과 읍의 시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교대로 노래하거나 읍도록 배열되어서 여기에서는 한 곡의 둘째 문장이 첫째 문장에 담하거나 첫째 문장의 변형문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애가 3장 3절 및 예레미야 51장 38절에 예가 있다.) 16세기의 유카텍 언어 문서와 추마엘 및

티지민의 칠람 발람즈에서도 똑같은 체계의 발생이 보여지고 있다. 1907년에 기록된 어떤 라칸돈 마야 인디언의 기도도 똑같은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언어에 관하여 에릭 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문장의 리듬과 억양격의 활발한 사용과 각 문장의 교차적 성격에 유의하십시오. 말의 소리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 높은 수준의 무운시”는 압운이 아니라 동음 이의어 말장난에 더 가까운 것을 사용하고 있다.<sup>23</sup>

플레인 대학교의 문로 에드몬슨은 좀더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포플 부는 시에 속하는 것으로, 산문으로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완전히 평행적 2행 연기로 구성되어 있다.” 마야 언어의 뿌리의 본질 뿐 아니라 이 형식으로 인하여 본문에서 애매하지 않은 의미를 찾아 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특정한 단음절 근원에 대하여 수십 개 이상의 다른 의미를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을 때가 흔히 있다.”<sup>24</sup> 에드몬슨은 또한 시편같은 대귀법 사용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두 개의 연속 문장이 의미에 있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때로는 영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말장난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 히브리 언어 양식, 의미론 및 원문 형식의 잔재이다. 우리가 한 언어에서 발견하는 것이 다른 언어에서 직접 파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지만 마야어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 마야 언어권에서 사용하고 싶어했을 문체상의 개념과 형식에 매우 유사했을 것이다.

문체에 관한 이런 주장은 당연히 교차법을 생각하게 한다. 이것은 불문경과 고대의 근동 및 지중해 문장에서 널리 발견되는 놀라운 문장 형식이다.<sup>25</sup> 교차법은 대귀법을 거꾸로 한 형식이다. 직접적인 대귀법은 잠언 15장 1절에 있는 것과 같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할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두 문장에 있어서의 개념 사이에 거의 1대1에 가까운 관계는 교차법에서는 거꾸로



되어 둘째 문장은 역순으로 뒤따르게 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사 55 : 8) 매우 복잡한 교차어가 알려져 있으며 물몬경에 있는 일부는 전문을 통하여 수천 개의 단어가 길게 나열되어 있어서 매우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다. ㉖ 10년 전에 톰슨에게 마야 문학에서 교차법이 발견되느냐고 물어 보았으나 그는 그런 개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내가 그 형식을 설명하자 그는 관심을 표명하고 킬람 발람 원문에 있는 일부 짧은 문구가 사실은 교차 어귀일 것이라고 했다.

메소아메리카 원문과 예술에 있는 다른 교차법 예가 될 수 있는 것도 유카텍과 함께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 ㉗

마야(및 다른 메소아메리카 언어)의 말장난은 유태 언어 및 이집트 언어와 유사하다. 칼레톤 호지는 “유태어는 구조상 매우 독특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종류의 말장난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인도, 유럽계 및 다른 많은 언어에 있어서는 이런 종류의 말장난이 불가능하다. 그는 이집트 상형 문자는 부분적으로 이런 경향의 결과로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㉘

이 모든 것은 물몬경에 나타나는 것과 놀랄 만큼 일치한다. 베나민왕은 “(아들을) 조상들의 온갖 언어로 가르쳐 슬기로운 자가 되게……하였으며”(모사 1 : 2; 제사장들이 그 가르치는 일을 했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왕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전수되는 언어를 통달하여 그 언어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모사 1 : 3)가 담겨 있는 그들 조상의 기록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정복 시대에 유카탄에 있어서 상형 문자 기록에 관한 지식은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 일부 “중요한 군주” 및 “군주의 아들”만이 소유하고 있었다. ㉙ 베나민은 자기 아들을 가르치게 하는데 있어서 합당한 왕가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지니프가 이 언어를 아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자기 기록의 첫머리인 모사이아서 9장 1절에서

그것에 관한 말을 삽입한 것에 유의한다. 사실 이 문구는 이 장소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통달한 언어는 “(니파이인) 사이에서 개정된 애굽어라 일컬어지는 언어”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어의적 수단 즉 “유대인의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몰몬 9 : 32; 니일 1 : 2) 이 복잡한 체계를 통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으로 공부할 시간이 있는 부유한 사람은 “배울 기회”가 늘어난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여……무지하였”(니삼 6 : 12)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소아메리카 기록 및 물몬경 기록 사이에 또 다른 일치점은 그 문자가 여러 언어에 사용될 수 있는 적응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음성적인 요소도 있었으나 문화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음성학적 결정 인자를 암기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체계를 적합하게 개정할 수 있었다. 이집트어가 수천 년 동안 사용되는 가운데 새로운 발음과 단어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이집트어가 니파이 시대의 이집트어로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더 많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물몬과 모로나이 시대에 사용한 기호를 “개정된” 애굽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언어가 상당히 변하였을 때 모로나이가 “우리의 언어를 아는 백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하등 놀랄 일이 아니다. (몰몬 9 : 34) 엘마 시대에 “레이맨인들에게 니파이인들의 언어가 가르쳐지기 시작”하였을 때 이 상형 문자 방식은 다른 방향으로 변하였을 것이다. 레이맨인들은 이 글자 또는 상형 문자를 배움으로써 지역적인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여 의사 소통을 기하고 “서로 장사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모사 24 : 4, 7) 그리하여 상인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혼합어 글자를 사용하여 상업을 할 수 있었다. “니파이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떻게 교역과 번영을 촉진시킬 수 있었는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다. 마야의 상형 문자 기록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20개 이상의 마야어 계통의 언어가 어디서나 또는 그 범위를 더 벗어난 곳에서도 전반적으로 읽혀질 수 있었다.

물몬경 시대에 기록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자주 이야기되고 있다. (예, 힐 3 : 15; 니삼 5 : 9) 따라서 그 대부분은 값싸고 편리한 재료 즉 종이 위에 기록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암몬아이하의 민는 이들이 불에 던져질 때 불에 탄 경전은(엘 14 : 8 참조)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 거의 틀림없다. 메소아메리카의 기록은 대부분이 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서 병풍을 접어서 책을 만들었다. ㉚ 마야 지역에서는 콜롬비아 신대륙 발견 이전의 이런 사본 가운데 단 3가지만 보존되었다. ㉛ 상형 문자는 각 “페이지”에 세로 글씨로 기록되었다. 마야식 글자는 두 행으로 되어서 각 글자는 인접한 옆글자와 함께 읽고, 상단부터 하단까지 짝을 지어 계속되었다. 대략 그리스도의 시대 이전에는 한 줄만 사용했다. 요셉 스미스가 물몬경 판에서 옮겨 적은 글씨의 사본으로서 1980년에 공개된 “안톤 사본”은 한 줄로 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한다. 이것은 물몬경을 보존한 “니파이인의 언어” 시대인 옛날의 그리스도 이전 시대와 일치한다. ㉜ 마틴 해리스가 1828년에 요셉 스미스 사본을 보여 준 찰스 안톤 교수는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극히 적은 지식에 근거하여 신이 본 것을 “멕시코 달력”에 비유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㉝

기록, 특별한 문자, 서기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으나 최근 수십 년 동안에 메소아메리카 기록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는 분명해졌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정보를 이용하여 기록과 책에 관한 물몬경 말씀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경전상의, 그리고 학문상의 정보가 점점 더 일치점을 향하여 더욱 많이 변화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

(계 속)

## 주

1. 실바너스 지 물리. *고대 마야*,



제2편(스텐포드:스텐포드 대학 신문, 1947) 260-61페이지. 이 인용한 말은 1935년에 기록되었다. 259페이지 참조.

2. 마이클 더 코우. "고대 마야 기록 및 서법." *시각적 언어* 5(1971), 259페이지.

3. 같은 책 298페이지.

4. 고든 알 윌리 편집, *중앙 아메리카 인디언 편람*

제3권(오스틴:텍사스 대학 신문, 1965년), 652-53페이지에 있는 제이 에릭 톰슨의 "마야 상형 문자 기록." 토마스 에이 세빅 편집, *미대륙 토착 언어* 제2권(뉴욕:플레논 신문, 1977년), 37페이지에 있는 토마스 에스 바넬의 "기록 방식."

5. 코우, 1971년, 301페이지; 데이빗 에이치 켈리, *마야 원문 해독*. (오스틴:텍사스 대학 신문, 1976년)

6. 코우, "고대 마야 기록 및 서법", 301페이지; 코우, *마야 서기 및 그의 세계*(뉴욕:더 그롤리어 클럽, 1973) 11페이지.

7. 코우, 1971년 301페이지.

8. 물몬이 정말로 그들의 기록 방식은 모든 주제를 다 다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물몬경에서 얼마나 많은 주제가 다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 이어서 12장 25절은 그의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명해 준다. 거기에서 모로나이는 그들이 "말을 어찌 써야 할까"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기록할 때 겪었던 "불완전"이었다.(물몬 9:31 참조) 알파벳 방식 대신에 상형 문자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생긴 애매함이 그 어려움을 야기시켰을 것이다.(물몬 9:33 비교)

9. 톰슨, 646페이지.

10. 바넬, 35페이지. 조지 시 베일란트, *멕시코의 아즈텍인들*(하몬즈워드, 잉글랜드, 펠리칸 출판사, 1950년), 201-04페이지; 프란시스 에프 버단, *중앙 멕시코의 아즈텍인들:제국 사회*(뉴욕:홀트, 라인하트 및 윈스턴, 1982년)150-51페이지.

11. 에이치 비 니콜슨 편집 *고전기 이전의 메소아메리카에 있어서의 종교 예술 및 초상의*

기원(로스엔젤레스:유. 시. 엘. 에이 라틴 아메리카 센터 및 로스엔젤레스 인종 예술 평의회, 1976년), 110페이지에 있는 코우의 "마야 기록 발달"에 있어서의 초기 단계. 코우는 13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올백 기호를 빠뜨리고 있다. 이것은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실려 있는 상형 문자 및 독특한 틀라틸코 봉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될지도 모른다. 칼 휴 존즈의 "안톤 사본"과 두 개의 메소아메리카 원통형 "봉인"에서 이것과 "안톤 사본"의 재미있는 유사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뉴스레터 및 진행 상황, 고대 역사 고고학 협회* 122(1970년 9월), 1-8페이지. 데이빗 에이치 켈리의 그림 "틀라틸코에서 온 원통형 봉인" *아메리카 유물* 31(1966년), 744-46페이지.

12. 주 11에서 이야기한 틀라틸코 봉인 및 카미날루유 스텔라 10; 코우, 1976년 115페이지 참조.

13. 조이스 마커스의 날짜는 지금 아마도 1세기 늦겠지만 인류학 연례 개관 5(1976년), 44페이지에 있는 그녀의 "메소아메리칸 기록의 기원." 어쨌든 이 유적에 나타난 상형 문자(오악사카, 산 호세 모고테, 유적 3)는 그 뒤에 여러 세기의 발전 역사가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양식화되어 있다.

14. 바넬.

15. 린다 밀저 반 블러콤, "마야 및 이집트 상형 문자 비교." *카투눔* 11(1979년 8월), 1-8페이지.

16. 엠 데일 칸카테와 여러 사람이 편집한 *언어학 및 인류학:시 에프 웨셀린을 추모하며*(벨기에, 리세 더 케테르 데리데르 프레스, 1975년), 333-34, 344페이지에 있는 칼레톤 티 훗지의 "기록 의식:이집트 원본의 기원 조사."

17. 제이 에릭 에스 톰슨. *마야 상형 문자 기록:소개*(노먼:오클라호마 대학 신문, 1960년), 9페이지.

18. 코우, 1971년, 305-06페이지, 1973년 18페이지.

19. 코우, 1971년 305페이지. 알프레드 엠 토제르가 편집한 "란다즈 릴라시온 데 라스 코사스 데 유카탄:번역." *하버드 대학, 아메리카 고고학 및 인종학 피바디 박물관,*

신문 제8권, 1941년판, 169페이지와 비교한다.

20. 코우, 1973년 8페이지; 데이빗 에이치 켈리. "메소아메리카 신들의 천문학적 실체." *고대 천문학(천문학 역사 잡지 부록)* 11권(1980년) 1-54페이지.

21. 바넬, 45페이지.

22. 같은 책, 톰슨, 1970년, 7페이지와 비교, 토제르, 28페이지.

23. 톰슨, 1960년, 61-62페이지.

24. 문로 에스 에드문슨 "혼계의 책:과테말라의 쿠키 마야의 포폴루." *플레인 대학, 중앙 아메리카 연구소, 출판* 35(1971년), 10-12페이지.

25. 존 더블류 웰치 편집, *유적에 있는 교차 대키법:구조, 분석, 해석*(서독, 힐데샤임, 게르스텐베르크 베르라크, 1981년); 노엘 비 레이놀즈 편집. *물몬경 근원 고대 기원에 관한 새로운 빛*(프로보:브리감 영 대학, 종교 교육 센터, 1982년), 33-52페이지에 있는 존 더블류 웰치의 "물몬경에 있는 교차 대키법."

26. 웰치, 1982년 49-50페이지.

27. 예, 마가렛 맥클레어, *포폴루:구조와 의미*(마드리드/뉴욕:플라자 메이어, 1972년), 55, 67-90페이지. 마빈 코호다스. "팔렌크에 있는 태양, 십자가 및 조각된 십자가의 판넬의 초상:제1부." 이것은 *소시에다드 멕시코나 데 안트로폴로지아, 치아 메사 레돈다, 칼라파, 1973년*(멕시코, 1975년) 75-101페이지.

28. 훗지, 344페이지.

29. 토제르, 29페이지.

30. 같은 책 28페이지.

31. 톰슨, 1960년, 23-26페이지.

32. 다넬 더블류 바흐만. "책 안에 봉인됨:새로 발견된 '안톤 사본'에 관한 예비 조사, *브리감 영 대학 연구* 20(1980년), 321-45페이지; 재인쇄 BAC-80으로서 별도로 이용할 수 있음. 고대 조사 및 물몬 연구 기금,

33. 비 에이치 로버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증거*, 제2권, 제2부. "물몬경"(솔트레이크시티:데저렛 북사, 1926년), 95-100페이지. \*



# 성령으로 가르침

로렌 시 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성령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모든 교사의 첫번째 책임이다.

이 번 주에 캐나다의 북동 지역에 있는 옐로나이프라는 지역 사회의 한 젊은 미개척지 비행사는 일요일에 자신의 신권 정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다윈의 어떤 사무직원은 자기 동반자에게 전화해서 그들은 가정 복음 교육을 잘 계획을 하고 있다. 일본 동경에 있는 두 선교사는 구도자에게 복음 토론을 가르치려 하며, 독일 스투트가르트의 주부는 벌써 다음의 초등학교 봉과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지구의 이끝으로부터 저끝 사이에 수천 명의 사실상의 남녀 군대인 교회의 교사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 모두가 복음을 가르치라는 부름에 응한 것이다. 그들은 온 세계 교회의 모든 스테이크, 지방부, 와드, 지부에서 회원, 비회원, 어린이, 젊은이, 남자, 여자 등 모든 사람들을 진실로 가르친다.

우리는 이 충실한 교사들을 그들이 행하는 선에 대하여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들은 단지 지식을 전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세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공과를 듣는 사람들을 승화시키며, 선한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가르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 관하여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서로 가르치며 선도하라.”(교성 43:8) 가르치며 선도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 이상의 것이다. 선도하는 것은 성령의 권세로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선도하거나 가르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배운대로 행하도록 영감을 준다.

따라서 성령에 의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모든 교사의 첫번째 책임이다. 세상은 인간의 교리에 따라서 가르치거나 재미있는 지식이나 그밖의 사실을 교환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가르칠 때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경험이며, 그는 듣는 사람의 영혼에게 이야기하게 된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교화되고 깨우침을 받는다. 내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고 좀더 훌륭한 생활을 하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교회의 교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그 가운데는 교사 훈련 과정에 등록하고, 교회 교재에 있는 제언과 도움을 따르는 것이 있다. 그러나 교사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영적인 것이며, 이것은 개인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성 42:14)는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첫째, 복음을 가르치라는 부름에 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침례를 받고 진리의 근원인 성신의 은사를 부여받아야 한다. 둘째, 우리와 우리가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승화시켜 줄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생활 안에서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생활하고 행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너희는 어떠한 성직에 성임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령 곧 진리를 가르치려고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하는 직책”(교성 50:13-14)이라고 답해 주셨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모두 적용되는 경전의 명령인 것 같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몇 구절

뒤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로부터 성임되어 보혜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파송된 자는 진리의 영으로 전파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만일 다른 방법으로 하면 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50:17-18) 교회의 교사들이 복음 교사로서 틀림없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준비는 교육이나 경험이나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하는 것과 늘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를 할 때는 그가 가르치는 것을 성령이 비추어 주며, 그 결과 신앙이 커지게 된다. 교사는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가슴에 닿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두가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교성 50:22) 그러면 그렇게 영감받은 사람에게 의로운 행동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교사에게는 충실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를 아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 신권을 수호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신권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성령에 의하여 가르치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영감에 찬 이야기를 하거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그 이상의 것이다.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호소와 성령의 부드러운 역사를 혼동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충실한 교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슴에 와 닿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확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서적인 경험이라는 의미에서는 전혀 정서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와 학생을 교화시키거나 영적으로 승화시킬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다시 배우면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보라, 나는 베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베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또한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성 8:2; 9:8) 성령의 권세로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주목한다.

1. 우아함. 주님께서서는 Esaias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의 성역의 문을 여시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

그러고 나서 구세주께서는 회당에 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눅 4:21-22) 성령에 의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뭔가 우아한 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적인 겸손, 신앙 및 사람에 대한 깊고 영속적인 사랑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몇 년 전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지시로 딴 곳을 방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운트 로스킬 제8와드의 복음 교리반에 참석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당시 교사는 교회로 개종한 조앤 암스트롱이었다. 그녀의 공과는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것이 역력히 나타났다. 그 자매는 교재를 지침으로 사용하며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암스트롱 자매의 가르침은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녀의 가르침의 영은 그녀의 생활 경험 및 주님이 어떻게 그녀에게 영감을 주시고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 암스트롱 자매는 외견상 매우 힘에 넘치고 대담한 교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우아함을 그녀에게 안겨 주었다. 바로 그 영이 공과반을 다스렸다. 모두 열심히 참여했으며 조금이라도 언짢은 기운은 없었다.

토론은 있었으나 논쟁은 거의 없었다. 그 자매는 신비나 추측을 강조하지 않았다.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승화되고 교화된 느낌을

갖고 공과 교실을 떠났다. 우리 교회에는 암스트롱 자매와 똑같은 교사가 수천 명씩 있다. 그들은 성령의 속삭임에 자신을 맡기며, 그로 인하여 그들 내부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우아함이 발전되고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그들이 비록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과에 접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개성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을, 또한 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나 진지한 복음 공부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인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는 공동의 기반이다.

2. 간증. “나는 이 제명을 주어 너희 죄를 용서하리니, 곧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일을 온 세상 사람에게 간증할 때에…… 너희 마음속에 엄숙함……을 굳게 세워 잃지 않게 하라는 것이니라.”(교성 84:61)

교사 훈련반은 교사의 개발을 돕는데 있어서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고 또 할 것이다. 교사들이 경전과 예언자들로부터 복음을 가르치도록, 또한 그 공과를 일상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성분을 자신의 가르침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복음 교사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자신의 간증이다. 교회 전체의 능력을 다 합친다고 해도 간증을 키우지 않은 교사가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의 간증을 사용하지 않는 교사를 보충해 주기에 충분한 교재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간증의 권세에 의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수천 명의 이 교회 교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3. 경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졌더라.”(앨마 17:2)

주님은 지침으로서 교회에 경전을 주셨다. 우리는 경전이라는 말을 할 때 4가지 표준 경전 뿐 아니라 현대의 사도, 예언자 및 교회 지도자들의 영감받은 기록을 모두 일컫는다. 이는 그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교성

68:4) 기록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파라마타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린 구도자 노변의 모임에 참석하는 특권을 누렸다. 주연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다. 그 청중 가운데는 오랫동안 복음 원리를 배웠으나 그것에 맞추어 어떠한 행동이라든 하기에 아직 충분한 간증을 갖지 못한 장기적인 구도자가 많이 있었다. 그 십이사도는 그날 밤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복음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한 축복을 행사하셨다. 그는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경전을 밝혀 주셨다.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참됨을 성령이 증거해 주었다. 모임이 끝났을 때 그 만년 구도자 가운데 7사람이 침례 날짜를 결정하였다.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또 진리를 찾는 사람을 선도하기 위하여 경전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함을 교회 전체에 보여 주는 모범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무엇보다도 경전의 영감과 거룩함을 특징지어 주는 것은 그것이 기록될 때의 영과 그것을 충실하게 양심적으로 읽는 사람에게 전해 주는 영적인 부이다……이것은 인간이 부여받은 영적인 것을 키워 주고, 인간과 그의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결속을 나타내고, 강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청소년 인스트라터, 1912년 4월호, 204페이지)

4. 기도.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교성 42:14)

영적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기도이다. 기도는 도움과 이해를 찾는 수단이다. 이것은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만사를 아시는 분이시.”(모사 4:9)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르쳐야 할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본다. 마음으로 자기가 가르칠 공과의 방향이 떠오른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느낌이 자신을 인도하게 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참 마음 참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 10:4) 회명과 확신의 느낌이 들면 '계속한다. 혼란과 의심이 들면 자신의 공과 진행 방식을 바꾸고 다시 주님께 기도로 말씀드린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자신이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앞에 설 때 자신이 주님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께 간구한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잡수시지도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포착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물러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와 주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움직인 측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야 할 것을 안했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막았거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신앙을 낚는 기적,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2년, 208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사를 지배하는 큰 원리는 성령의 권세에 의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사실상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성신의 권세와 영향력에 의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그 누구도 성신 없이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교회 정사, 2:47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사들은 교회내의 다른 어떤 사람들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의 부름에 있어서 주님이 기쁨과 성공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항상 성령에 의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란다. \*



# 일요일에는 열지 않음

컨텐과 라레 와가 루스 하이너에게 한 이야기

우리가 1년 사업을 돌이켜 보며 평가하기 위하여 함께 앉았을 때 우리가 염려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총 판매량은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나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장부 조사 결과 이윤은 만원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정말 놀랐다.

“내 장부를 한번 보면 일요일에 가게를 열려고 그렇게 안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게가 일요일에 문을 연 그 기간에 우리는 일요일에 전혀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부부로서 아이다호 폴에서 일요일에 문을 여는 음식점에서 여러 해 일하였다. 그 기간에 우리는 일요일에 그 가게가 흔히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았다. 기계가 늘 고장나는 것 같았으며 우리는 고객에게 봉사할 수 없었다. 수리공은 일요일에는 보통 때보다 두 배의 돈을 요구했다. 그 날은 훌륭한 일꾼을 찾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만일 우리 자신의 사업체를 살 수 있게 된다면 이를 바꾸리라고 맹세했다.

어느 해, 마침내 우리가 작은 식당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것을 사기 위하여 큰 부채를 짊어졌으며, 금융계 사람이나 주변의 음식점 주인들은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인 일요일에 경쟁하지 않는다면 그 빛을 갚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고 장담했다. 우리는 이미 선금을 냈으며, 우리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울무에 걸린 것 같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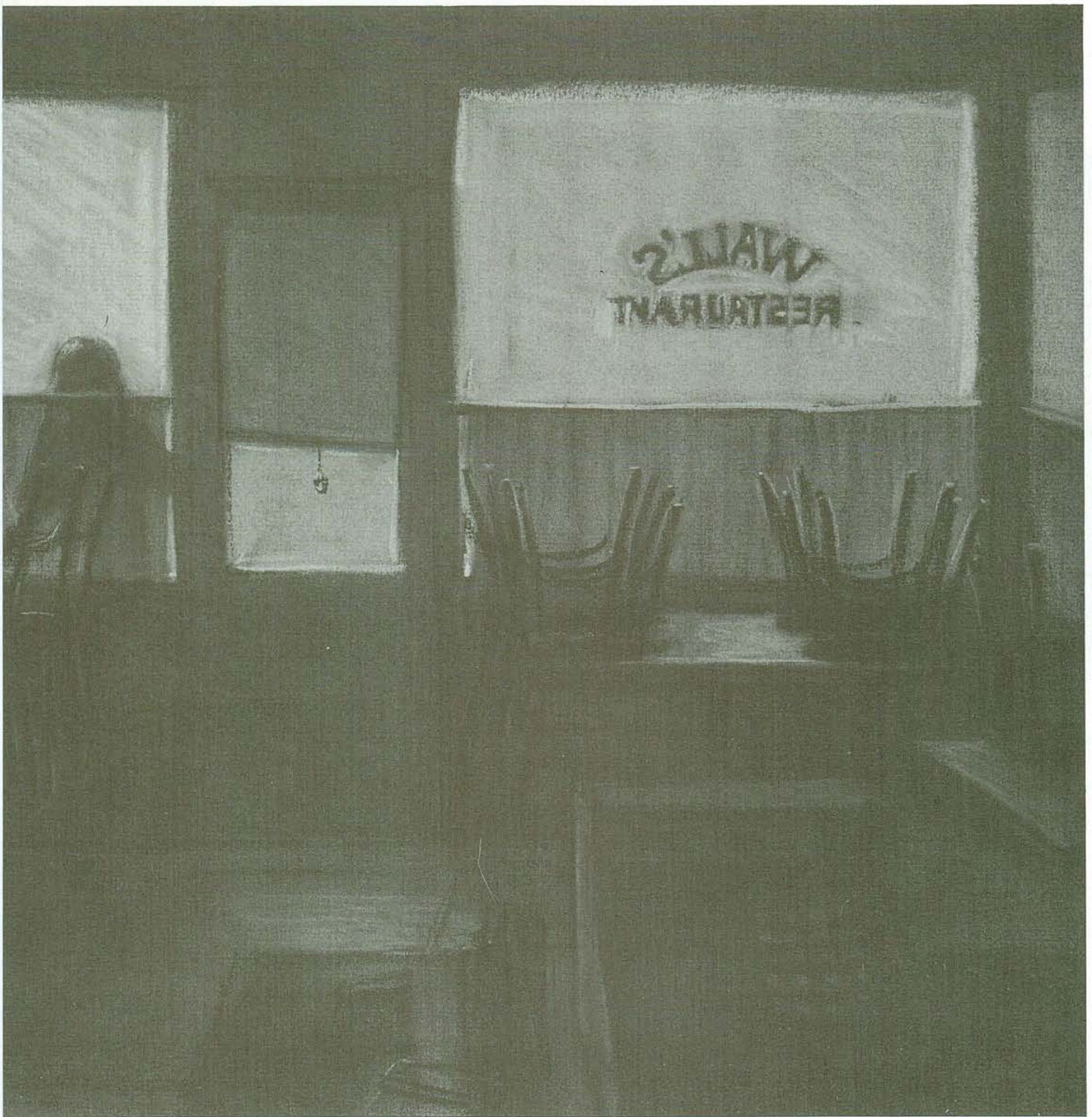
예측한 대로 일요일이 가장 매상이 많은 날임이 입증되었다. 우리는 일요일에도 문을 열기로 결정한 이후로 바꿀 수가 없었다. 우리는 사업에 실패할까봐 두려워했다. 마침내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는 우리가 일요일에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고객을 잃게 될 것이고, 이 사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돈을 모을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커졌다.

내가 심장마비에 걸렸을 때 우리는 거의 목표에 도달하고 있었다. 우리는 일요일에는 훌륭한 일꾼을 찾기가 어려웠으므로 겨울 동안은 일요일에 문을 닫기로 합의했다.



의사는 나에게 질실히 요구되었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 그 결정에 찬성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나는 우리 장부에 기록되는 거래량이 적어지는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아내에게 일요일에 다시 문을 열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몇 초 동안 조용히 나를 쳐다보고는 “먼저 가서 겨울을 보세요. 자신이 매주 7일씩





일하고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잘 보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느릿느릿하게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오. 전부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오.” 라고 말했다.

나중에 우리가 1년 사업을 돌이켜 보며 평가하기 위하여 함께 앉았을 때 우리가 염려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총 판매량은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나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장부 조사 결과 이윤은 만원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정말 놀랐다. 우리는 그 숫자에 만족하여 다음 해에도 일요일에는 식당문을 닫기로 합의했다. 그 다음 해에도 판매량은 상당히 떨어졌으나 이윤은 적어지지 않았다. 우리 사업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고도 성공했다.

나는 그 기간 동안 일요일에 아무 소득없이 그렇게 일한 것, 또 그로 인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생각할 때 안식일의 율법에 순종하면 그 자체에서 보상이 온다는 교훈을 배우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렸나 하고 놀라게 된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다. 우리는 모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축복받게 될 것이다. \*







# 평생 한번 오는 생일 선물

플로이 돈 맥케이

**만** 18살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18번째 생일날 에릭은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에 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좀 특별한 것을 보내기로 했다. 가족이 모두 한 가지씩 책임을 맡았다. 그의 여동생 제니퍼는 과자를 만들고, 아버지는 돈을 보내고, 그의 형인 브렛(그도 브리감 영 대학에 있었다.)은 그가 그 돈을 쓰는 것을 도와 주고, 동생인 제프는 그림을 그리고, 나는 멋진 생일 카드에 글을 써 넣게 되었다.

나는 내 책임에 대단한 열성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의 생애의 한해 한해에 관하여 한 구절씩 적기로 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처음 몇 구절을 적고 웃었다. 그리고는 에릭이 만 6살이었을 때에 관하여 생각했다.

“에릭에게 여자 친구가 생겼대요! 에릭에게 여자 친구가 생겼대요!” 라고 브렛이 에릭과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놀리던 것이 생각났다.

에릭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의 토실토실한 얼굴에서 웃음이나 찡그리는 흔적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브렛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물었다. “엄마, 내일 아침을 좀 일찍 먹을 수 있어요? 학교에 일찍 가고 싶어요.”

나는 “그래”라고 대답하고 그의 차분한 태도에 놀랐다. “그래, 물론이지. 왜 그런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니?”

그는 “아니예요.” 라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고는 뒷문으로 놀러 나갔다.

브렛은 “그것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참견이 심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조금은 했겠지만 나는 왜 에릭이 일주일 동안 15분씩 일찍 학교에 가서 15분씩 늦게 오는지 알고 싶었으나 에릭이 스스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화요일에 나는 도서관 책을 반납해야 했다. 나는 학교가 끝나는

2시 20분에 도착하기 위해서 1시 50분에 출발하기로 했다. 나는 좀 늦었으며 거의 집에 당도할 때쯤에야 에릭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한 소녀와 함께 가고 있었다. 나는 그 소녀가 긴 금발 머리에 예쁜 옷을 입은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좀 달랐다. 그 소녀는 왼쪽 다리를 끌고 있었으며 그 옆을 지나칠 때 왼손이 불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에릭이 나를 보고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되돌아보며 매력적인 미소와 푸른 눈을 지닌 예쁜 소녀를 확인하게 되었다. 저녁 시간에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에릭이 1학년 때 많은 친구—그 중 한 사람은 여자라 할지라도—를 갖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하였다.

“에릭, 오늘 네 친구를 보았다. 이쁘더구나.”

그는 “착해요.”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학교에 일찍 가는구나?” 아버지가 물으셨다.

“네”  
“그래,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렴. 이름은 뭐지? 어떻게 생겼니?”

“이름은 제니예요. 그리고 그 애는……꼭……여자처럼 생겼어요.” 가족이 모두 웃었다. 내가 “그 애는 예뻐요. 금발 머리와 푸른 눈에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다리는 뭐가 잘못되었지?”라고 브렛이 아무 악의없이 물었다.

에릭은 곤두서서 언성을 높였다. “잘못된 것 없어.”

“브렛이 나쁜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팔과 다리에 문제가 있어. 뇌성마비야. 그렇다고 그 애가 예쁘거나 착한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야.” 나는 지체 부자유아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누구나 어떤 종류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12월 초에 전화를 받았다. “에릭 어머니세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저는 해밀턴 부인입니다. 제나 해밀턴의 어머니입니다.”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가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은 제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이 있어요.” 나는 당황해서 정직하게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했다.

“제나를 아세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매우 이쁘더군요.”

“그러면 팔과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군요. 뇌성마비랍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난 여름 이사 와서 그 애를 등록시키러 갔을 때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려 했어요. 그 애의 학습 능력은 손상받지 않았답니다. 자동차 사고로 그렇게 되었을 뿐인데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그 애를 놀려서 마침내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 아이를 특수 학교에 보내라고 했으나 저는 그들이 우리 아이에게 이곳에서 기회를 쥐 봐야 한다고 고집했지요. 그들은 회의적이었으나 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은 학교에서 말한 대로였어요. 일부 아이들은 그 애를 놀리고 별명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도 같이 놀아 주지 않았읍니다. 1주일 반 동안 매일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후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에릭이었읍니다.” “에릭이라고요?” “그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는 제나에게 쉬는 시간에 같이 놀아도 되겠느냐고 물었읍니다. 소년들은 웃으며 에릭까지도 놀렸읍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무시했읍니다.”

나는 “우리 에릭은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했다.

“그는 놀리는 것을 무릅쓰고 제나와 함께 집으로 왔읍니다. 그날부터 에릭은 제나와 함께 학교에 가고, 쉬는 시간에 함께 놀고, 집에도 같이 왔읍니다. 학교에 다닌 지 3주 되었을 때 어떤 아이들이 제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읍니다. 에릭은 그들이 그 짓을 멈추지 않으면 싸움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단호히 막았읍니다.”

우리 에릭은 그랬다. 다른 아이들보다 5센티미터 가량 작지만

필요하면 싸우는 것을 겁낸 적이 없었다.

“에릭이 너무나 확고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나를 놔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나는 아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제나와 함께 놀고 있으며 아무도 제나의 결함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됐읍니다.”

“또 있답니다.”라고 말을 계속했다. “어제 저는 문 앞에서 에릭을 불러 세웠읍니다. 저는 일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넌 참 착하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착하니?’라고 말했읍니다. 물론 그것은 질문이 아니고 칭찬이었으나 그는 똑바로 서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소년이 착한 소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에릭, 어느 교회에 다니니?’라고 말했읍니다.

“그러자 그는 ‘물론 교회라고도 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닙니다. 선교사를 만나 보시겠어요?’라고 말했읍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나도 선교사를 원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 말이 안 나왔다. “저도 에릭이 장하다고 생각하지요.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나 해밀턴은 그 이후로는 에릭이 그리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친구였으나 그는 다시 소년들과 함께 놀았고 여자는 모두 “바보”라고 했다. 한두 해가 지났을 때 제나 가족은 이사했고 우리도 이사했다.

나는 내가 만들고 있던 그 생일 카드를 내려다 보았다. 나는 에릭이 6살이었을 때에 관해서는 한 구절도 안 쓰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너무나 특별했다. 나중에 나는 목직한 생일 카드를 보내어 에릭이 지기 생일에 관한 내용을 한 방 친구에게 읽어 줄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금요일 밤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엄마, 저 에릭이에요.”

“에릭! 오늘 네 생일이지. 내 카드 받았니? 돈도 받았니? 모두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지?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

“엄마! 들어보세요! 형과 제가 학생 기숙사에 앉아서 옛날 생각을 하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어떤 여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다. “에릭 밀러니? 아마 나를 기억하지 못할꺼야. 너무 오랫동안이야. 난 제나 해밀턴이야.” “정말 제나야?” 기억하구 말구. 여기 유타주에서 뭘 하고 있니? 다니러 온거니?” “나도 너처럼 브리검 영 대학에 다니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됐지? 어떻게 여기에 오기로 결정했지?”

“약 3개월 전에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두 젊은이가 문을 두드렸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 어머니는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우린 정말 흥미없어요.’라고 했어. 그리고는 그냥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라고 묻자 그들은 ‘가끔 물론 교회라고도 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합니다.’라고 대답했어. 그 순간 어머니는 나를 보셨고 우리는 함께 ‘에릭의 교회야’라고 했어. 물론 우리는 관심이 없었지만 에릭의 교회에서 온 사람에게 친절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너도 알지. 우리는 4차 토론이 끝난 후 침례받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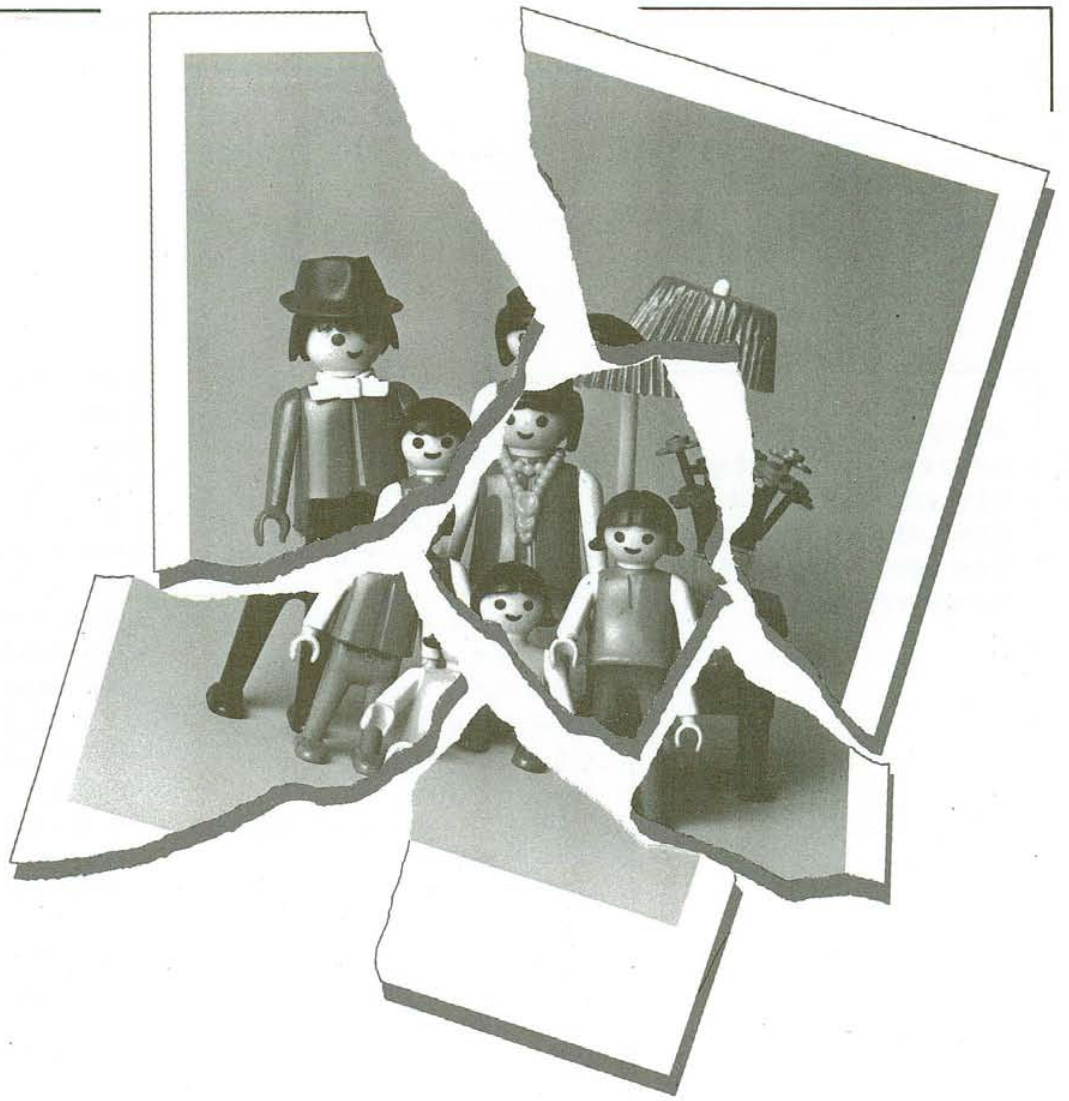
“제나, 그것 참 멋있구나. 오늘이 네 생일이야. 우리는 생일 축하를 하고 있어. 어디 사니? 우리가 가도 되니?”라고 했다. 에릭은 그의 이야기를 끝냈다. 나는 뺨과 코의 눈물을 닦아 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조용했다. 마침내 내가 “그래, 갔니? 어떻게 지내든?” 하고 말했다.

에릭은 아주 열성적으로 “예뻐요!”라고 대답했다.

“다리는 어때? 좀 나았니?”

“다리요? 그애 다리에 뭐 문제가 있었나요?” \*





## 우리집에 질서를 세웁시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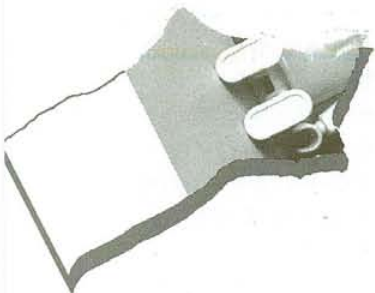
**마** 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이 권고는 우리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이 물질주의, 불경한 세속주, 도덕성의 타락, 성인 및 청소년 범죄, 증가하는 범죄,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존엄성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의 추악한 면을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이리한 것에 돌리는 것은 우리 가정과 생활에서 이런 해로운 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시대의 영적으로 해로운 철학과 태도와 행동에 굴복하는 부모와 자녀와 모든 사람의 생애에 큰 슬픔과 괴로움이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려 합니다.

교회는 부모가 훈련시키는 일을

도와 줄 수 있고, 또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저 도와 줄 수 있을 따름입니다. 교회는 부모의 가장 크고 긴급한 책임에 있어서 부모를 대신하지는 않으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책임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교성 68:25)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지시하시고 18개월이 지났을 때 모든 어린이는 유아 상태로는 주님 앞에서 무죄하지만 그 다음에 “저 사악한 자는 와서 (불순종하도록 설득함으로써)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김없이  
규칙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은밀하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드리는 사람보다 악마의  
권세에 대항하기 위한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하였느니라.”(교성 93 : 38-40)

그 다음에 주님은 일부 지도자  
형제들과 말씀하셨는데 맨처음  
프레데릭 지 윌리암스와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계명에 따라  
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나니, 저 사악한 자가 아직도  
너를 지배하고 있도다. 네가 괴로움을  
받는 까닭은 곧 이것이니라.” 나는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일부와 우리의  
청소년 일부가 빛과 진리를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윌리암스  
형제의 책임에 관하여 조금도 의문의  
여지를 남겨 두시지 않으셨으며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계명을  
네게 주노니, 만일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면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교성 93 : 41-43)

그러고 나서 주님은 시드니  
리그돈에게 그가 “저의 자녀에 관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또한 뉴웰  
케이 휘트니가 “가정에 질서를 세워  
좀더 근면하고 가정에 마음”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자녀의  
비행에 관하여 책망하셨습니다.(교성  
93 : 50)

예언자 요셉 스미스까지도 자녀를  
합당하게 훈련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받았습니다. “네 가족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며.”(교성 93 : 48)

오늘날의 부모들도 초기의  
형제님들처럼 자기 자녀를 인도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도록 권고하는  
똑같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복음 원리 안에 훈련시키지  
못할 때 따르는 결과는 지금도 당시와

똑같이 심각합니다. 비록 이런  
제시에서 주님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으나 그 책임은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책임을 떠맡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등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살피는 것에 너무 바빠서 그들이  
세상의 악에 대항하도록 강화시키고,  
영생을 위하여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것들을 등한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산에 기어 오르는 것에  
너무 열중하여 지친 나머지  
산꼭대기에 서서 경치를 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이  
세상에의 것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복음에 관한 시야가 가리워진 것  
같아서 심히 걱정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대로 실행한다면 우리  
시대의 청소년 비행이 분명하게  
얼마나 없어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말일성도로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그 예입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족은…… 네 말을 더욱 성실히  
마음에 새겨야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 있는 곳에서  
옮기우리라.”(교성 93 : 48) 또한  
예언자는 무법 상태에 관하여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민는다.”(신앙개조 제12조)

국가 법률에 진정으로 기꺼이  
순종한다는 이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하도록 합당하게 훈련시킨다면  
수많은 파괴와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하신 또 다른 원리는 일입니다. 이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함으로써 오늘날 젊은이와 관련된 수많은 짜증스런 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두뇌는 악마의 공장”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경진에서는 태만을 가장 경멸할 만한 것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참진리입니다.

니파이는 시헌 가운데서 본 자기 백성의 잔류민을 설명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불신앙에 빠진 후…… 추악하게 되며, 게으르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는 더러운 백성이 되더라.”(니일 12:23) 주님은 우리의 경륜이 시대의 게으름을 정죄하시며, 이것을 청소년 범죄 및 악함, 특히 구체적으로 탐욕과 연관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주 앞에서 기억될 것임이니라.”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저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어 그 자녀들이 죄악 중에서 자라나며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희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니라.”(교성 68:30-31)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하신 또 하나의 행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온의 주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28)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받드는 중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성 10:5)

매일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말일의 문화가 인간의 생활과 일상사에서 하나님과 그의 의를 없애 버리려고 애쓰는 것같이 보이는 오늘날 더욱 더 필요합니다.

기도의 권세와 우리 사회의 비종교적인 경향을 알고 있는 현명한 말일성도 부모로서 자기 자녀가 기도하도록 훈련시키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김없이 규칙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은밀하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드리는 사람보다 악마의 권세에 대항하기 위한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아가서 나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것의 힘을 과소 평가하지 않기 바랍니다. 엘마의 방탕한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회개하게 해준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엘마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진리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전과 말일의 예언자들의 권고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는 우리 가족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가르치는 방법은 우리가 연구와 경험과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것으로서 성령은 “신앙의 기도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교성 42:14)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든 우리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가르치려면 우리 자녀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행복으로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니라.”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수양, 태도, 품행 등이 변덕스러운 것으로서, 아무 까닭 없이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고 즐거운 생활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을 때에만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그들이 복음과 가까이 머물러 있도록 격려하는 방향으로 적용하겠습니까? 주님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다음 권고는 모든 부모에게 대한 확실한 지침입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니라.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저로 네 성실함이 죽음의 사슬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교성 121 : 41-44)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보임으로써 우리 자녀의 선의와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계시된 복음 진리에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이해심을 보이면 그들은 부모의 인도에 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인간의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2 : 25)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행복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의도이며, 우리가 그리로 인도하는 길을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그 종착점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인도의 결과, 또한 그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예언자의 이런 말씀을 믿고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은 미덕, 의로움, 충실함, 거룩함 및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교회 정사, 5 : 134-35)

엘마가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최란 결코 행복”이 아니란 것을 가르칩시다. (엘 41 : 10) 회개를 미루면 결국에는 파멸이 온다는 것을 가르칩시다. 레이맨인인 사무엘은 방탕한 니파이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구원의 날을 미루어 마침내 영원토록 돌이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 너희의 멸망은 분명하게 되었도다. 이는 너희가 평생을 두고 얻지 못할 것을 구하였음이고, 우리의 위대하고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이의 뜻을 거스려 간악함을 행하며 행복을 구하였음이라.”(히 13 : 38)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우리 자녀가 자라면서 이런 위대한 진리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합당한 행동을 인정해 주고, 합당하지 못한 행동은 슬픔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훈계와 모범으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대로 기꺼이 생활할 결심을 심어 주고 가르칠 때에만 우리 사회 및 모든 사회에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신성함에 대한 증거를 얻고, 그 약속의 기쁨을 알게 되면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의 법률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훈련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경의 정신을



느끼기 바랍니다. 베나민왕은 위대한 작별 연설로 그의 백성이 회개하도록 감동시켰고 신앙을 강화시켰는데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미 내가 이른 대로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너희 영욕을 그토록 기쁘게 하는 죄사함을 얻었거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기억하여 스스로 지극히 겸손하며,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을 늘 기억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행할진대 항상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며, 언제라도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며, 남에게 흠족하도록 내어 줄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모사 4 : 11-15) 나의 아들 하나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이 성구를 읽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함께 물문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와 내가 한 구절씩 교대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는 동안 그는 “너희는 너희 자녀를……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14절)게 하라는 말씀에 큰 감명을 받은 나머지 자기가 행한 짓같은 장난을 생각하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언제나 이 성구를 생각하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곤 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베나민왕의 이 훌륭한 설교의 태도와 영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리라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녀에게 복음의 영을 심어 주도록 노력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서로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사람에게 흠족하도록 내어 줄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베나민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모사 4 : 15) 가르치십시오.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계명에 엄하게 일치하는 생활을 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 22 : 6)는 주님과 그의 예언자들의 권고를 따른다면 말일성도는 곧 니파이인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상태의 문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여……시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짓을 범치 아니하였으며.”(니사 1 : 2, 15-16) 그 성도들이 어찌나 축복을 받았는지 이 예언자이자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들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으니.”(니사 1 : 16)

주님은 현재 우리의 경륜의 시대도 이와 비슷한 사회를 갖게 되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짐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악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말일성도 부모, 교사, 지도자들은 집에 질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또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가 그들의 생활에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하여 가야 하는 길을 견도록 사랑을 품고 그들을 성공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근면성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세상에 만연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입니다.
2.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을 도와 줄 수 있고 또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모를 대신하지는 않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3. 우리는 자녀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돌보는 데 너무 바빠서 그들을 세상의 악에 대항하도록 강화시키고, 영생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한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4.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안 다음에는 우리 가족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구, 경험 및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스스로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게 됩니다.(교성 42 : 14)
5. 우리의 가르침이 효과적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보임으로써 우리 자녀의 선의와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



# 저마다 원하는 대로

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나는 여러 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에 근거를 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방문자 센터의 안내인에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는 했으나 어릴 때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주일학교 공과 교실에서 쫓겨 났는데 아마도 몸가짐이 합당치 못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로 교회 건물 안에 발을 들여 놓은 적이 한번도 없으며 더 나아가 그의 자녀, 손주, 증손주가 백 명이 더 되는데 그 가운데 교회 회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화가난 주일학교 역원의 성급한 행동으로 인하여 치러야 했던 무서운 대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일학교 역원의 입장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젊은이의 생애 뿐 아니라 자기 후손의 생애에까지 독소를 뿌린 그 자신의 행동과 오랜 세월 동안 품어 온 그 고집스럽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의와 적의에 대한 책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어떻게 했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교회의 여러 스테이크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므로 주일학교, 청년, 아론 신권 정원회 공과 교실에서 청년, 청년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애로 사항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새로운 교사를 부르는 것이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신권 지도자들이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도 가끔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효과적인 교사 개발 프로그램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불행한 상황이 전적으로 교사들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 자신의 생애에서 경험한 한 사건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지역의 고등학교 옆에서 정규 세미나리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년 중간에 교사 한 사람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그 세미나리에 공석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그 교사를 대신할 사람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한동안 매일 그의 수업을 몇 시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나는 항상 그때의 일을 즐겨 회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중의 한 반에 정말로 골치아픈 소년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재능도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으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리 공과 교실에서 그는 일반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노력했으며 대개는 반에서 좋지 않은 행동으로써 주의를 끌었습니다.

나는 교실에서 영적인 것에 관하여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으므로 이 소년의 장난에 늘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했습니다. 여러 번 개인 접견을 했으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접견할 때는 상당히 좋은 태도를 보이지만 그 다음 공과 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또 그런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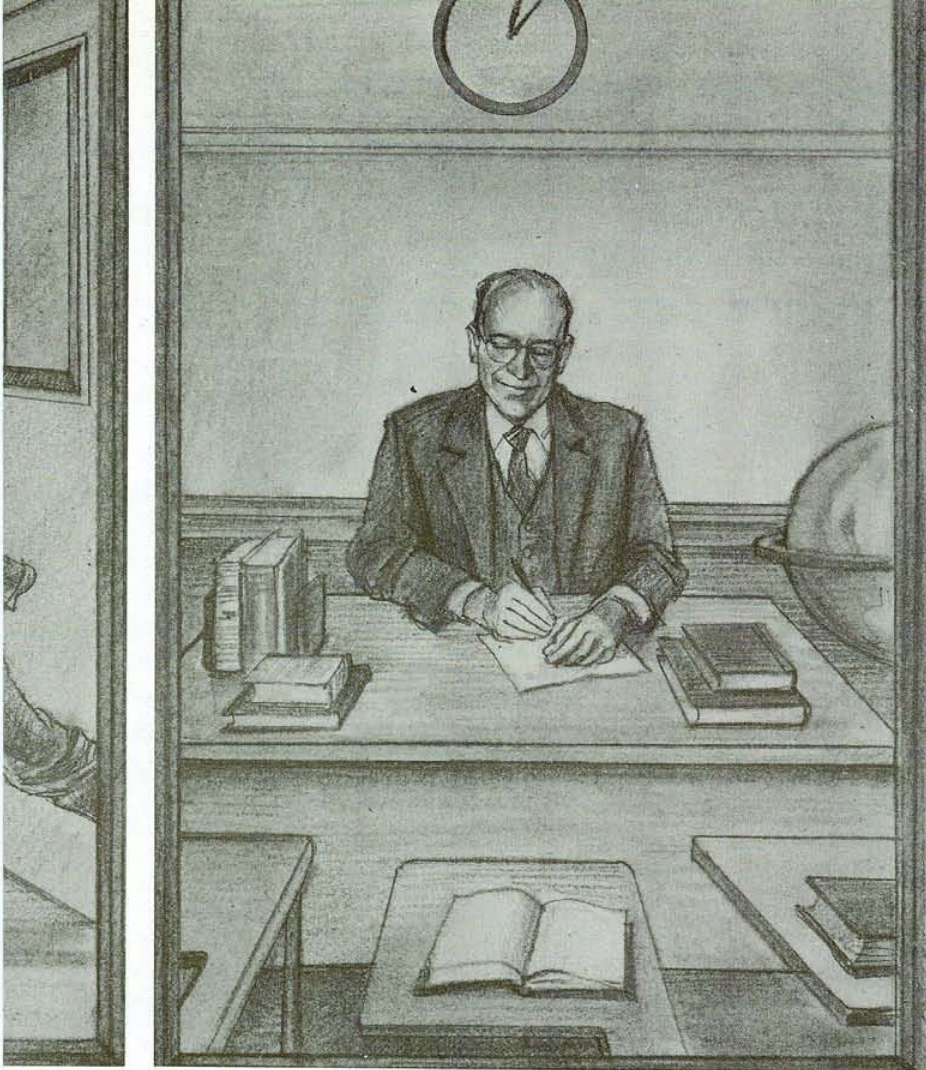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그 소년이 헤어져서 혼자 사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적성 검사를 하면 능력과 재능이 평균 이상이지만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우리 반에 질서와 방향을 잡고 유지하려면 뭔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 왔습니다. 나는 그 소년이 늘 하듯이 분위기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을 때 나와 함께 교실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밖에서 나는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의 공부할 기회를 그의 장난으로 인하여 희생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행동을 자제하고 세미나리 공과 교실에서 필요한 영적인 분위기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더 이상 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없이 휙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두번 다시 그를 못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의 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걸어 나의 행동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미나리 교실에서 쫓아 낸 일이 앞으로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은 옳았습니다. 나는 그 일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자유로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두 주일 지난 후 직장이 바뀌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젊은이가 세미나리로 다시 돌아갔는지도 모릅니다. 20년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소년의 이름도 기억에 없습니다. 가끔 오래 전에 동정심없는 한 세미나리 교사의 행동으로 자기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비난하는 어떤 대가족의

아버지가 저 바깥 어디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동안에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잘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좀 배운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마도 그 젊은이가 그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할 수 있었던, 내가 행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되돌아보면 그 반에 있었던 다른 학생에 대한 염려와 어떻게든 그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고 싶었던 강한 열망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게 됩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다시 돌이켜 보면 그 소년에게 그 세미나리 교실에서 나가라고 했던 그 날에 직면한 것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년의 영적인 기회에 대한 책임 이외에도 그 소년의 행동으로 인하여 영적인 기회를 빼앗길 위험에 빠져 있던 다른

반원에 대하여서는 내가 어떤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까? 또 그 소년은 어떤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까?

극히 최근에 나는 그 소년의 일화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의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스테이크 매회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저녁 매회가 끝난 후 어떤 여성이 내게로 와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얼굴은 낮아 익었으나 혼자 힘으로는 그가 누구인지 생각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옛날에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나의 강의를 들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즉시 32년 전에 그녀를 알았던 것과 똑같이 확실하게 기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학생 지도자였으며 공부를 잘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과거에 함께 경험했던 것을 회고했습니다. 그 여성은 기쁘게 그의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일부 자녀는



결혼했으며 아들 하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튼튼한 가족으로서 지역 사회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던 도중에 그 자매가 갑자기 “절더러 교실에서 나가라고 하였던 날이 생각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당황하였으며 그런 일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이 학생이었을 때와 관련되는 좋은 경험밖에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그녀의 기억에 혼란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성은 “아니예요.”라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형제님이 저의 행동을 고쳐 주려 하셨을 때 저는 입에 담으면 안될 공손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교실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그런 방식으로 훈육하신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 나가겠다고 했으나 형제님은 제가 숙녀답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면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하시며 교실 밖의 복도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몹시 화가 나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보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했습니다. 서의 부친은 그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으며, 이런 일을 알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 늦게, 저는 그 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이 옳고 제가 나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들과 급우들이 저의 그런 행동을 너무나 자주 참아 주었으며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자신에게서 이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성품을 발견하였으며, 변화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돌아와서 형제님에게 교실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애의 매우 중요한 면에서 전환점이 되었으며 저는 언제나 형제님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여성이 불행한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사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한 예입니다. 이 일은 내게 몇 가지 재미있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반응과 세미나리 공과 교실에서 나가 버린 소년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이런 상황과 그들과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그 이후의 기간에 그들의 생애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부모, 교사, 지도자, 친구들은 모두 돌보고 사랑하고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와 사랑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책임과 주는 사람의 책임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주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문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에 해가 될 때는 행동을 고칠 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결점에 대하여 변명하고,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람을 비난한다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불행할 초대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경의 교사이며 지도자인 엘마는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고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다가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런 좌절에 빠진 순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엘 29:1) 엘마는 조롱받고 배척당한 암몬아이하 성에서 경험한 것에 관하여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만일 그가 이 사람들의 발 밑의 땅을 흔들 수 있었다면 그들이 겁내어 복종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마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바라는 대로 공의로우신 주님의 엄격한 율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니, 주님께서 죽음에 이르든지 생명에 이르든지, 인간의 원대로 허락하시며, 인간이 원하는 대로 구원도 허가하시며, 죽음도 허락하심을 내가 앎이라.

“참으로 내가 아노니, 모든 사람 앞에 선과 악이 놓여 있어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는 죄가 없으려니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원하는 대로 선이나 악, 생명이나 죽음, 기쁨이나 양심의 고통이 주어지리라.”(엘 29:4-5.)

일단 옳고 그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훌륭한 부모를 모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훌륭한 아들과 딸을 갖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훌륭한 교사와 지도자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훌륭한 학생과 추종자가 되는 것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의도적인 행위에 따르는 궁극적인 결과를 회피할 수 없도록 지상 생활의 본질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재미없고 부적절한 교사, 고문,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할 때 자신이 얼마나 좋은 학생, 반원, 정원회 형제, 아들, 딸인지 정직하게 자문하십니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다하고 있습니까? 혹은 흔히 존재하는 문제를 가중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변명 거리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수를 할 때 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좀더 나은 행동을 할 결심을 할 만큼 용기와 덕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나는 늘 언젠가는 우리 교회의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 날 형제님의 세미나리 공과 교실에서 나가 버린 그 학생입니다. 그 이후로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좀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내가 20년 전 그 날부터 느껴 온 염려가 어느 정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꿈자리도 덜 괴롭게 될 것입니다.\*



질문 : 사람은 주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감독을 만나야 합니까?



대답 : 프로보 유타 스테이크, 프로보 32와드, 제리 테일러 감독

이 질문에는 실제로 두 가지 면이 담겨 있으며 그 모두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그의 저서 용서가 낳은 기적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많은 범법자들이 수치심과 자만심 때문에

적어도 일시적으로 주님께 간단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양심의 위로를 삼으며 이것으로 충분히 고백했다고 자위한다. ‘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죄를 고백했으니 더 이상으로 필요없겠지.’라고 그들은 말한다. 큰 죄를 범했을 때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범법자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려면 두 종류의 용서가 필요한데, 하나는 주님의 교회 역원으로부터 받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용서인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행정에 관해 엘마에게 주신 다음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가라, 나아가 내게 범법한 자들을 각각 저들이 행한 죄에 따라 내가 심판하라. 만일 누가 나와 내 앞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내가 또한 그를 용서하리다. (모사 26 : 29)”(용서가 낳는 기적 164-165페이지) 이 질문의 두번째 절반을 이해하려면 고백의 목적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영은 육체와 흡사하며 단지 영을 구성하는 물질이 “극히 청결하고 순수”(교성 131 : 7)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몸에 큰 상처가 있으면 의사에게 가며, 의사는 우리가 다시 온전해지게 해줄 방법을 처방으로 써 줍니다. 영에 대한 모욕이나 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적절하게 치료받는 과정에서 그 치료의 일부가 고백입니다.

최근에 만7살된 저의 아들 웨이드에게 충수 과열이 생겼습니다. 그의 복부 전체로 감염이 퍼져 나갔지만 걸로 불 때는 아무것도 심하게 잘못된 것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적절한 의료 보호와

간호가 없었다면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도 큰 방법을 저지른 다음에 고백이 없으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약한 상태로 남을 따름이며, 이 필멸의 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게 되고, 시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볍게 굽히는 상처가 있을 때마다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처럼 “작은” 죄를 모두 감독에게 고백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도 성립될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아는 하찮은 행동에 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설교집 8 : 362) 열쇠가 되는 것은 우리가 중대한 범법과 “하찮은 행동”을 정직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용서가 낳는 기적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범법자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하며, 겸손해야 하며, 요구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교회 역원에게 자기가 범한 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다. 이러한 죄에는 간음, 사통, 기타 성범죄 및 이에 상당한 무거운 죄들이 있다.”(용서가 낳는 기적, 164페이지)

만일 자신의 개인적인 범법이 이 정의의 범주 안에 속하는지 확실히 모를 때에는 그것에 관해서 감독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가 현명한 권고를 해주고 비밀을 지킬 것입니다.

범법에 관해서 감독에게 말씀드릴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전화를 해서 그분의 사무실로 찾아가달 약속을 하십시오. 그는 언제나 와드 회원을 돕고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젊은 남녀는 누구나



감독과 정기 접견을 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는 합당성에 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진실하게 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않으려고 범법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을 수 있지만 킴볼 대관장님은 그런 행동에 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정하신 다음과 같은 중요한 규칙이나 진리를 잊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다. 즉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의 왕국의 높은 지위에 부르고, 그들에게 권능의 옷을 입힌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주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같으며, 이러한 역원에게 사실의 일부를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면 주님께도 사실의 일부를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게 되고, 그의 종에게 반항하면 주님께 반항한 것과 같으며, 복음의 열쇠를 가진 형제들과 반목하면 주님께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을 보인 것과 다를 게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교성 84 : 36-37)”, (용서가 낳는 기적 168페이지)

경전에서는 심각한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당한 권능을 지닌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 : 42-43)

“죄를 뉘우쳐 고백하는 자들은(엘마가) 교회의 백성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게 하였으나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간악함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의 백성으로 헤아리지 아니하고 저들의 이름을 지워 버렸느니라.”(모사 26 : 35-36)

“그러나 이 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현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교성 59 : 12) 킴볼 대관장님은 용서가 낳는 기적 제13장에서 이 문제를 좀더 깊이 다루셨습니다.

질문 : 사탄에게는 어떤 제약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가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 넣을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대답 : 로렌스 알 피터슨 이세, 솔트레이크 브라이언트 스테이크, 버틀러 31와드의 전 감독

**모** 문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인상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악해질수록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가 더욱 커져서 마침내는 그 사람이 “악마의 힘에 사로잡혀” “지옥의 사슬”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엘마 12 : 11) 사탄의 방법이란 인간을 유혹하고 꺾어서 항상 “인간들의 마음에” 작용하여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니이 28 : 20) 니파이는 이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들이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 잡아 무서운 사슬로 엮어 벨 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리니.”(니이 28 : 22)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무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사탄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면 사탄에게는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참조) 또한 니파이는 사람들의 의가 사탄의 권세를 박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의 안에 거함에……사탄이 백성의 마음을 사로 잡지 못함이라.”(니일 22 : 26)

사탄의 사로잡는 권세와 완전한 무력 상태라는 양 극단 사이에는 퍼거나 유혹하는 능력이 사다리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는 영적 존재이므로 영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반대편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유 의지가 보존되며, 우리가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할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리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니이 2 : 16) 사탄이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편다면 성령도 우리가 덕을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모사 3 : 19 참조) 자유 의지는 성령이나 악령이나 인간의 의지에 반대하여 인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 힘은 모두 영적이므로 인간의 마음—또는 경전에서 말하듯이 가슴—에 직접 작용하여 그 사람이 뜻대로 그 중 하나를 택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의 균형이 바뀌어 그 사람은 영생을 향하여 위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파멸과 비참함을 향하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이 균형을 하나님의 영향력의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악함으로 인하여 양심이 “화인 맞아서(뜨거운 쇠로 지져 마비됨)” 무감각해진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사탄의 영향권 안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이 노력을 멈출지 모릅니다.(니일 7 : 14 참조)

사탄이 꾀려고 노력할 때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계해야 합니다.....그는 우리가 식욕이나 욕망을 만족시키도록 펴기 위하여 말이 아닌 느낌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심고 속삭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약점과 욕망에 충동질합니다.”(복음 질문에 대한 해답,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편, 제5권,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7-66, 제39과, 3 : 81)

우리가 모두 받는 유혹은 우리 마음과 가슴에 대한 속삭임과 충동의 형태를 취할 때가 흔히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그리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 있는 말씀에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노라.”(교성 6 : 16)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값진 진주의 모세서 4장 6절을

인용하는데, 거기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교리와 성약 6편 16절(및 24절)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을 것이며, 모세서 4장 6절에서는 사탄이 인간의 생각을 아는 것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탄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직접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해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답이 어떻게 되든지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특별히 유혹에 약한 부분을 알아낼 능력은 최소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하여 알게 되며,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눅 6 : 45-46)에 의하여 알게 됩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열매를 알 수 있으며, 우리가 노출시키는 약점을 그가 즉시 이용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탄이 어떤 기회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받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으며(고전 10 : 13 참조) 우리가 원한다면 계속해서 온갖 형태의 유혹에도 저항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닥친다. 타락한 사람과 합당한 사람의 차이는 전자가 유혹에 굴복한 반면에 후자는 대항했다는 점에 있다.”(용서가 낳는 기적, 84페이지)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함으로써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힘인 사탄의 권세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는 인간의 영혼을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누구나 승리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따르고자 하면서, 참으로 깨끗한 생각을 함으로써 누가 그 생각을 알든지 상관하지 않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

## 가정의 밤에서의 신앙개조

엘리자벳 마틴슨

우리는 만 2,3,5세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영적이고 풍요한 가정의 밤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우리의 주례 공과를 신앙 개조에 관하여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신앙개조 제1조를 그림 도표로 그리고, 자녀가 그것을 “읽도록” 도와 주며 매일 밤 가족 기도를 하기 전에 그것을 읽게 했다. 일주일도 채 안되었을 때 두 살된 아이까지도 제1조를 다 외웠다. 그리하여 그 달에는 매주 가정의 밤마다 그 신앙개조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매달 새로운 신앙개조를 배운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가정의 밤을 한달 전에 쉽게 계획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신앙개조를 외우고 복음 원리를 배우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고 있다. \*



# 회원 선교사가되라

린드세이 알 커티스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누리고 싶어할지 모르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초청하자.

**열** 여섯살 먹은 마리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두 번이나 친구들에게 선교사 토론을 가르치려고 접근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몹시 당황했어요.”

마리는 매력적이고 지적인 고등학교 학생이다. 그녀는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으며, 신앙이 돈독하고, 선교사 정신이 돈독한 가정 출신이다. 또한 예언자가 우리에게 권고하신 일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가까운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같이 생각됨으로 그런 일로 그녀가 좌절감을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성공적인 선교 사업이 보람된 경험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유쾌한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100 퍼센트의 성공을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로빈이 해군에 지원하여 미합중국 동해안에 배치되었을 때는 만 19세밖에 안되었다. 그녀와 한 방을 쓰는 사람은 말일성도 자매였는데 곧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저는 그녀의 생활 방식, 높은 이상과 표준을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생활에서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모두 다 지니고 있었읍니다. 저는 그녀와 또한 그녀와 같은 표준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청년 그룹 활동에 참여하자는 초청을 받고 싶어서 기다렸으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로빈은 몇 개월 후 서해안의 다른 해군 기지로 전근했다. 이상하게도 한 방을 쓰는 사람이 또 말일성도의

여성이었다. 그들이 첫날 밤에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교회 그룹도 이전의 그 그룹 못지 않게 바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차이가 있다면 로빈이 이 모든 활동에 그 동료와 함께 참여하도록 즉시 초청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로빈은 몇 주일 만에 선교사 토론을 시작하고 침례받았다. 로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었으며, 동료들이 교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 활동으로 데려오고 있었다. 로빈은 해군에서 제대하자마자 복음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두번째 경험은 우리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어떤 장로에 관한 것으로서 그는 자신의 개종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한 우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작은 동창 그룹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말씨를 썼고, 표준이 높았으며, 외모까지 달랐읍니다. 그들은 마약 따위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담배나 술도 하지 않았읍니다. 저는 그들을 존경했으며 그들과 알고 지내려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함께 매우 즐거운 시간을 갖고, 파티, 무도회 및 기타 사교 모임을 가졌읍니다. 누군가 그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저에게는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 틈에 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교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는 것을 용기가 나는 데까지 가능한 한 힌트를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몰랐읍니다. 마침내 저는 3학년 때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내가 그들 교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그들의

사교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겠는지 직접 물어 보았읍니다.

“저는 몇 주 이내에 침례받고 그들의 교회에 들어갔으며,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는 선교 지역에서 개종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을 때 그 동창생들이 나에게 함께 가자고 초청하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우리 와드의 감독으로서 젊은이들을 접견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니?” 수전은 “빌과 함께 다녀요.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좋은 친구예요.”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 학생 와드 파티에 초청할 만큼 잘 알고 있니?”라고 물었다.

수전은 빌을 파티에 데려왔으며, 우리 와드 선교사들이 남겨지 일을 다 했다. 빌은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로 봉사한 후, 지금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감독단에 속해 있다. 그리고 교회 어디에서나 빌과 수전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여러분의 사교 모임, 무도회, 소풍에 참석하고 싶어할 친구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운 시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얼마나 될까? 이런 방법은 쉽고,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이 아닌가? 대부분의 경우 선교사들은 그들을 토론으로 초대하고 가르칠 수 있다.

아내와 내가 10대의 우리 아들과 딸에게 목표를 주어 그들이 받아들였던 일을 가끔 회상한다. 그들은 교회로 오도록 도와 줄 사람을 찾아 내는 것을 주님이 도와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다. 시간 제한은 없었다.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교회 활동에 참여하자는 권고나 우리 선교사의 메시지를 듣자는 권고를 받아들일 특별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고,



찾고, 기다리기로 했다.

우리는 그 일이 마치 주님이 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틀림없이 알게 되리라고 약속했다. 또한 그 시간이 오면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기로 했다.

한 아들이 약 2주 뒤에 돌아와서 틀림없이 접근해야 한다고 느꼈던 대학에서 열자리에 앉았던 젊은이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그 사람에게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했다가 거절당했다. 그가 낙담한 것은 당연했으며 우리 계획의 효력을 의심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했니? 아니면 그저 통계 숫자를 채우려고 했니? 그 사람에게 접근할 때 네 눈과 가슴에 사랑을 품고 있었니? 그 사람에게 접근할 때 도움을 주시도록 성령에게 귀를 기울였니?” 아들은 “한번 더 해보겠어요. 그것에 관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해보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 문제에 관하여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도 이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소개해야 할 젊은이라고 느꼈다. 이번에는 가슴과 눈과 영혼에 큰 사랑을 품고 다시 그에게 접근했다. 그 젊은이는 교회에 관하여 배우기 위하여 우리 아들과 선교사들을 만나기로 동의했다. 그 젊음이 침례받았을 뿐 아니라 비활동이었던 그의 부인까지도 다시 활동화되었고, 이제 그들의 3 자녀는 말일성도 가정에서 자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 딸과 교제하던 한 젊은이까지도(지금은 사위가 되었음) 선교사 메시지를 받아들일 사람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찾는 목표를 받아들였다. 그는 평생 동안 알았으나 한번도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는 어떤 친구에게 접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젊은이는 1개월 이내에 침례받고 교회로 들어왔다.

모든 사람에게서는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이 있어서, 그 사람의 개성에 맞는 것같이 보이며 부담없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접근하는 사람이 지금은 교회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인생에서 언젠가는 교회에 들어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든지 안 받아들여든지 우리가 믿는 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 선교사 가운데 두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가 있다.

때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선교사는 가가호호 방문을 계속했다. 그들의 방문을 받은 가정 가운데 어떤 집의 아버지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지치고 시장한 상태로 퇴근하였으며, 혼자 있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가정 방문 외관원을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막 저녁 식사를 하려는 참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에 누가 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기억도 나지 않지만 특히 그런 시간에 방해를 받았으므로 방해자에 대하여 그렇게 즐거운 생각을 품은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처음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화를 낼 겨를조차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그들의 면전에서 문을 쾅 닫지는 않았습니다. 현관에는 두 젊은이가 서 있었는데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나와 우리 가족에게 전할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할 때, 문자 그대로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들에게 뭔가 매우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에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특별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나의 생애와 우리 가족의 생애에 가장 큰 축복을 맞아들였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례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6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는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고 있을 때 분명히 남과 다르다. 우리 몸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며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다고 하며 선교부로 찾아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비행기에서 당신의 교회 회원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절대로 이전과 같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가족에 관하여, 또한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할 때 얼굴에서 불이 붙는 듯했습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보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활에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생활한다면 우리 모범이 “더욱 복된 길”(이더 12:11)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행동 기준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이런 생활 방식을 원하고 있다.

교리와 성약 123편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 가운데에…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므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자들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그 진리를 찾도록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인 회원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일 것이다.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누리고 싶어할지 모르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초청하자.

그러면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이 생과 앞으로 올 생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우정을 쌓게 될 것이다. \*



#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

커스텐 크리스텐슨



내가 77명의 미국인 학생들과 함께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에 탔을 때, 그 흥분과 기대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는 서독의 뉴렘베르그에 약 한 달 동안 머무를 예정으로 가는 길이었다.

우리는 어떤 독일 고등학교(김나지움)에 참석하고, 독일을 여행하게 되어 있었다. 가장 신나는 것은 78가구나 되는 독일 가정이 우리 못지 않게 초조하고 흥분한 가운데 우리가 도착할 것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일이었다. 나는 뉴욕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비행 시간이 8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나는 부딪치지 않도록 짐을 높이 들고 비행기 뒷 자석으로 가서, 마지막 줄 다음 줄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 나는 즉시 내 가방을 머리 위

짐칸에 넣고 내 자리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내 옆자리에는 18년 전에 독일로부터 이사 온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사는 유쾌한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 부인은 가족을 만나러 뮌헨으로 가는 길이었다. 우리는 저녁을 먹을 때까지 영어와 독어를 섞어 가면서 이야기했다. 식사를 하면서 나는 독일인은 식사 시간에 보통 무엇을 마시느냐고 물었다.

그 부인은 즉시 “맥주나 포도주”라고 대답했다.

나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부인은 껄껄 웃으면서 “거기 가면 곧 배울 겁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당신 물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물론 가운데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서 나는 토론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글쎄요, 한번은 젊은이들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나는 “선교사 말씀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들은 흰 셔츠에 검정색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선교사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부인은 “그들은 매우 친절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들에 관해서 어떤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경비를 자비로 부담하며 연애도 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곧 그녀가 질문을 시작했으며, 나는 거기에 답변하는 데 열중했다. 식기를 거두어 가고, 불빛을 줄이고, 화면에 영화가 비치기 시작했다. 우리 두 사람은 아무도 그 영화를 못 보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으며 우리는 완전히 그 토론에 심취해서 계속했다.

곧 우리는 십일조, 영원한 결혼, 죽은 자를 위한 의식, 지혜의 말씀 및 다른 복음 원리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그 부인은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한 가지 주제를 끝내고 나면 그 부인은 또 다른 것에 대하여 질문했다.

마침내 그 부인은 물문경에 대하여 질문했다. 나는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물문경과 관련하여 모로나이가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는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로 갔다. 나는 그 부인과 진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마음속으로 따뜻함이 스미는 것을 느꼈다.

약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나는 그 부인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끝냈으며 그 부인은 그 순간에는 더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의자를 등지고 누워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가슴이 벅차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과 특히 해야 할 말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감사드렸다.

나는 그때 일어났던 것을 단순하게 끝내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물문경을 한 권 드리면서 그 부인이 틀림없이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받지 않았다. 단지 “괜찮아요.”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 부인의 대답은 1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그 대답을 듣고 나는 크게 낙담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이렇게 말을 잇는 것이었다. “나는 영어를 읽는 것이 매우 힘들며, 대부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신이 나서 가방을 끌어당겨 푸른 색의 책을 꺼내서 그 부인에게 주었다. 그 제목은 독일어로



“물문경”이라고 되어 있다. 나는 승리감을 느끼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이것은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라고 했다. 그 부인은 놀란 것이 분명했으며 나에게 감사를 표하고 책장을 넘겼다. 나는 모로나에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가리키며 “여기에 독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라고 외치다시피 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흐른 다음 그 부인이 “이 책은 좀 읽어 보고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돌려 드리겠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곧 “그 책은 제가 드리느입니다. 제 것은 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부인의 눈에서 빛이 났으며 고맙다고 하고는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부인은 내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자기 집 주소를 알려 주었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일지를 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방금 일어난 일을 적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행이 끝났다. 이 새로운 친구에게 작별을 고하자 그 부인은 다시 감사를 표시했다.

나는 독일에서 돌아온 후 그 부인의 주소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선교부로 보냈다. 나는 그 부인이 교회에 가입했는지 그 이후로 들은 바는 없지만 언젠가는 가입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나는 그 여행을 마친 지 얼마

안되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교리와 성약 100편 4절부터 8절까지를 읽게 되었다. 그 말씀은 원래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 대한 것이었지만 나를 위해서 쏘여진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이 성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것을 하며, 성신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나 주는 너희를 이곳에 오게 하였나니, 이같이 함이 인간을 구원함에 필요한 일임이라.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백성을 향하여 너희 목소리를 높이라. 내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말해야 할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순간에 너희가 말할 바를 얻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모두 엄숙한 마음과 온유한 청신으로 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주노니, 곧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성신께서 너희에게 오사 너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증거해 주시리라.”

나는 다음에도 언제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원하시든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고 싶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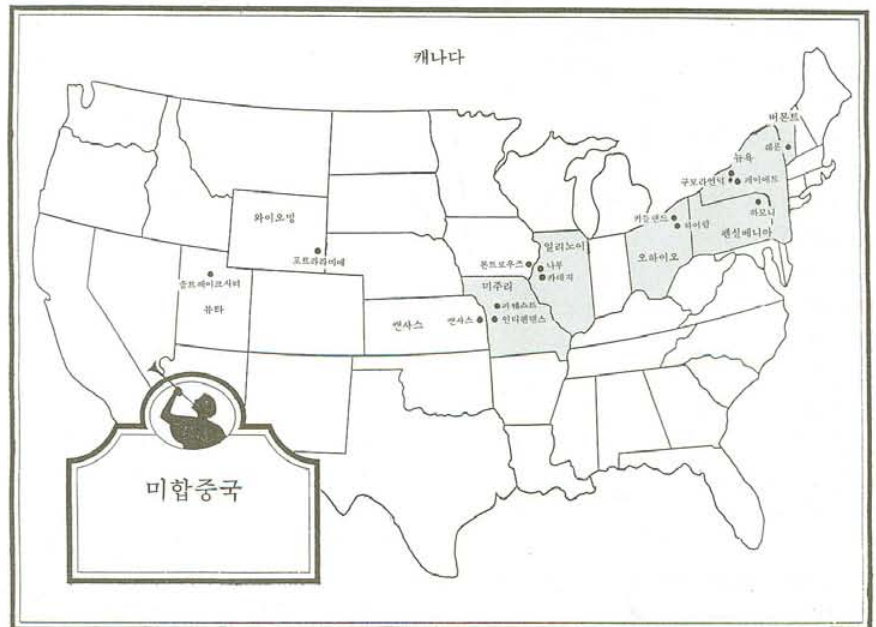
## 오늘날의 모습

교회의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이 두번째 카메라 탐방에서 이번 달에는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에 있는 장소를 보게 된다. 사진, 엘돈 케이 린소우튼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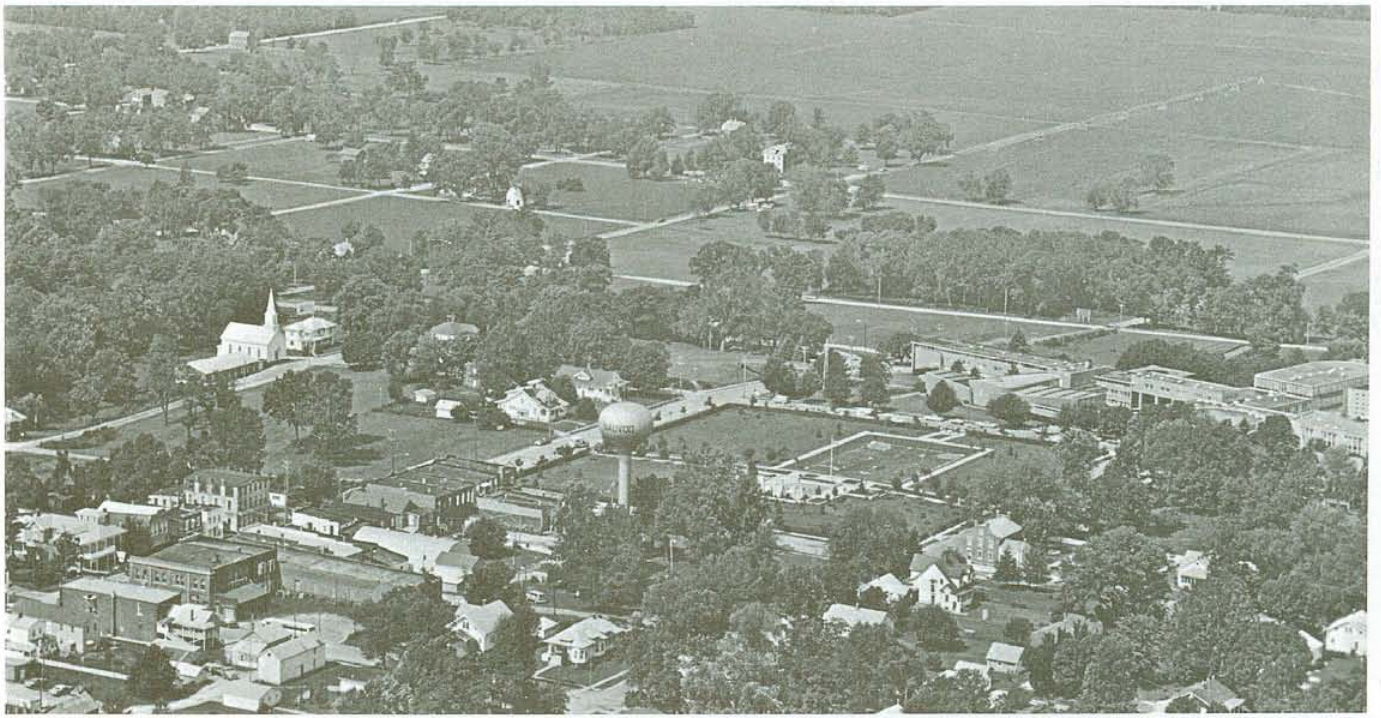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에 있는 교회의 유적지에 대한 카메라 탐방

사진 설명:

위: 미주리주 인디펜덴스의 공중 사진.  
 요셉 스미스는 1831년 8월 3일 이곳에 1.2 헥타르의 신전 부지를 헌납했다. 에드워드 패트리지 감독은 12월 19일에 25.2헥타르의 신전 부지를 130달러를 주고 매입하였다. 이 사진에서 신전 부지는 둥근 천장 모양의 빌딩인 복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강당의 왼편이다. 강당의 바로 윗편에는 말일성도 방문자 센터, 말일성도 스테이크 센터 주차장, 스테이크 센터가 있으며, 바로 위에 선교 본부와 선교 사무실이 있는 구 예배당이 있다. 신전 부지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회색으로 된 집회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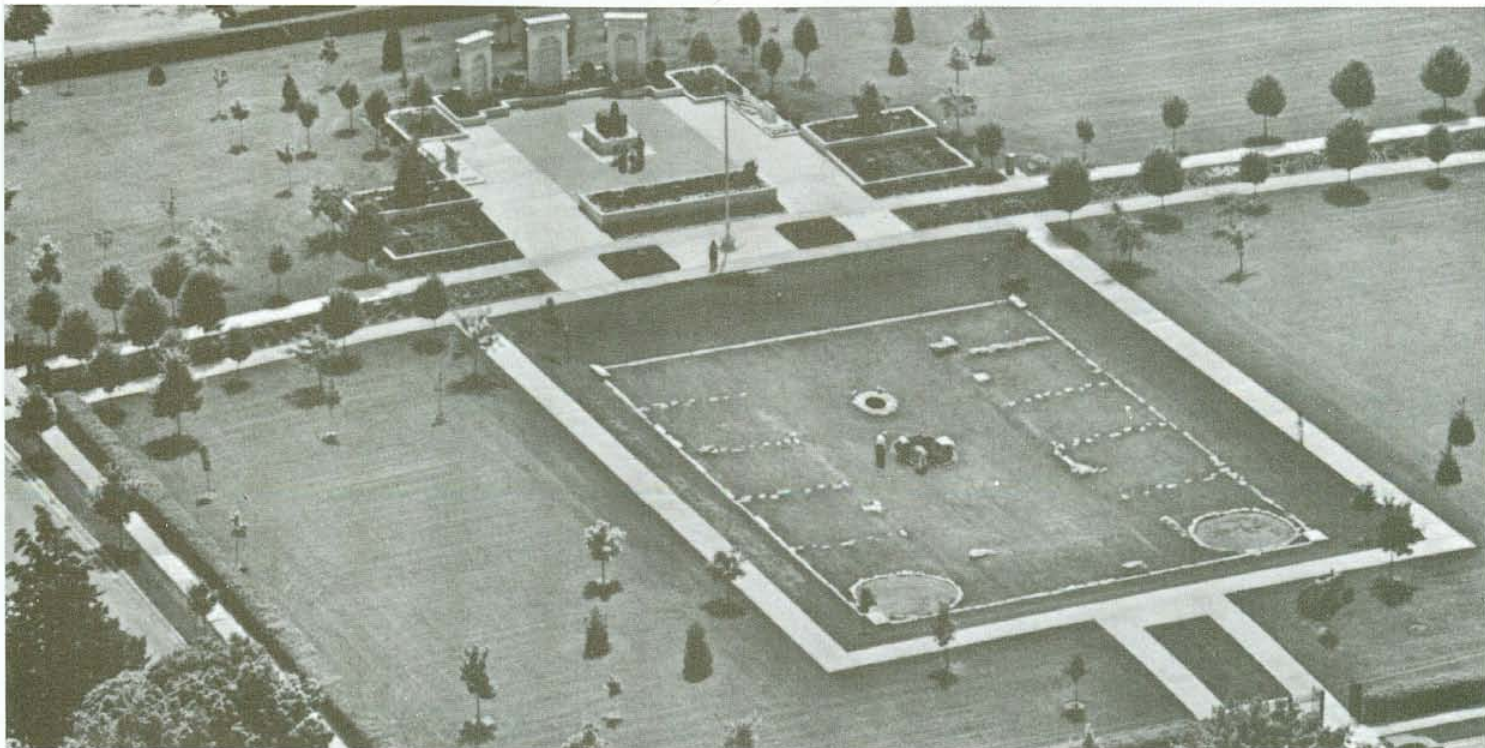




위 : 나부의 공중 사진, 오른쪽 하단 구석에 신전 부지가 있으며, 왼편 상단에는 칠십인 홀이 있다.

오른쪽 : 구세주께서 그의 사도들을 부르시는 것을 묘사한 그림을 크게 재현한 이 그림은 나부 방문자 센터에 전시되어 있다.

아래 : 나부의 신전 부지를 동쪽에서 본 공중사진. 기초가 파헤쳐 있다.







이 건물에 타임즈 앤드 시즌스가 들어 있었다. 여기서 교회는 1839년과 1846년 사이에 같은 이름의 신문과 물문경, 교리와 성약, 찬송가 및 기타 여러 저작들을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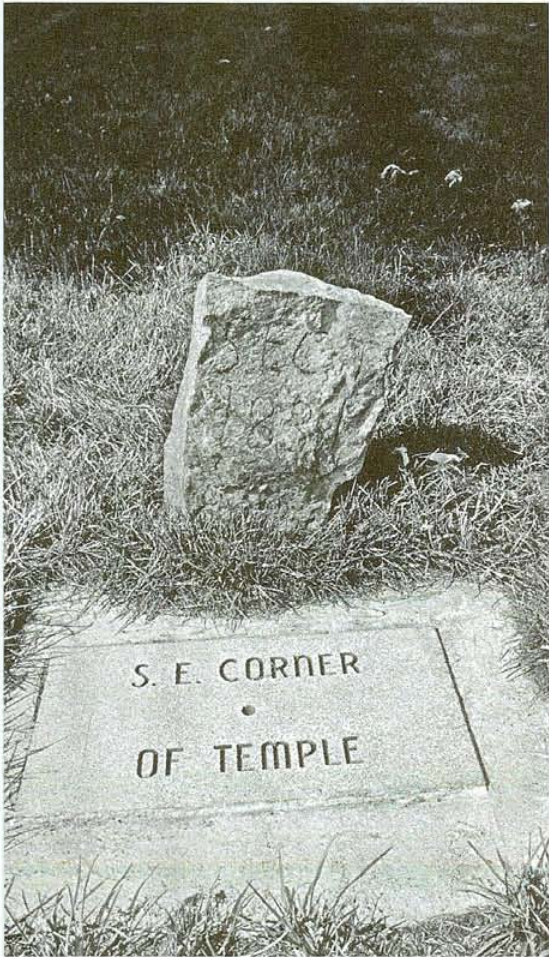


북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의해 유지된 나무 하우스가 바로 앞에 있으며, 중앙 원편에 있는 밝은 색 집은 예언자 요셉이 마지막 10달 동안 살았던 맨션 하우스이다.





신전 부지의 일부로 1971년에 헌납된  
인디펜덴스 방문자 센터



1929년 인디펜덴스 신전 부지를  
발굴할 때 신전의 북동쪽 모서리 근처에서 이  
경방형의 석회석을 발견했다. 표면에는  
1831년이란 연도가 새겨져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  
신전 부지과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T 1831"이라고 표시된 이  
는 돌도 신전 부지에서 발굴했다. 이것은  
의 남동 모서리"라는 뜻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 : 25)

